진리 평화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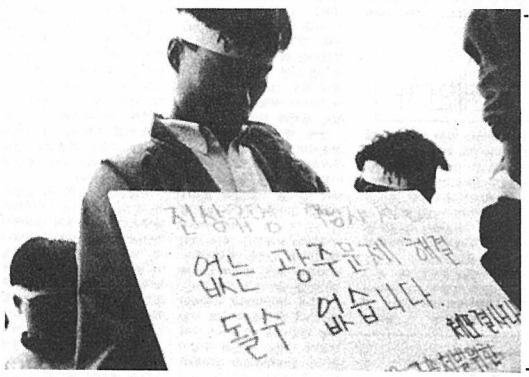
외대학보

발행인 이 강 혁
편집인 겸 주간 기 연 수
편집장 노 재 봉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 상 영

참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606호 1993년 5월 25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가) 급인가 1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후세대의 과제로 미루는 이상 진정한 신한국 창조는 있을 수 없다.

광주문제, Y·S의 아킬레스

전·노 구속처벌, 친미보수대연합 저지투쟁

한총련, 출범식에서 6공청산·반미투쟁 결의

'Y·S의 개혁 드라이브'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된 3·6 대사면, 신경제정책, 월드컵유치 운동 지원의 사정작전 등 일련의 개혁조치가 광주문제를 계기로 그 본질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지난 13일(목)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후세역사에 맡기자"고 말함으로써 그간의 개혁조치가 남한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의 접근보다는 중산층 포섭을 중심에 둔 '인기위주정책'에 지나지 않았음을 Y·S자신이 시사한 셈이다.

이에 대한 청년학생의 대응은 5월18일을 기점으로 "김영삼 정권은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단행하라", "광주학살 책임자 미국은 공개사과하라"로 모아지면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는 이후 민주대개혁 요구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반대하는 반미자주화 운동으로 전화될 조짐이다.

먼저, 광주 민중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이후 5.6공 청산투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김영삼정권의 개혁조치가 기층민중을 중심에 둔, 그들을 위한 개혁조치가 아니었음에도 청년학생들의 이에 대한 대응이 부진했던 것은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한데 있음을 일정정도 시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주문제를 통해 정권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지로 현정권은 '전두환·노태우 김틀이기'에는 관심이 있어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해질 경우 3당합당으로 이루어진 정권의 존립이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전·노 구속처벌'은 바로 이러한 김영삼정권의 비도덕적인 존립기반을 폭로하고 전-노-김으로 이어지는 친미보수대연합 구도를 저지하는 투쟁인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은 5.6공 청산으로 이어지고 금융실명제실시와 신정투의 노동정책 분쇄 등 민주개혁 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학살에 있어 군대 이동 승인과 발포승인 등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출발하는 반미운동의 고양은 현정세에서 필연이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반미 국기인 북한을 '작은 악마'로 규정하고 핵사찰 강요를 통한 북한의 고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NPT 탈퇴하고 유연한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의 만기일인 6월12일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평화적 국면으로 조성하느냐, 긴장고조와 전쟁위협으로 치닫느냐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통상압력과 수입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광주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공개사과'요구는 자연스레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투쟁은 한 계급이나 계층의 문제일 수 없는 전민족의 문제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큰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면 정세는 청년학생과 4천만 민중에게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지처벌에서 5.6공 청산을 중심으로 한 민주대개혁투쟁으로, 쌀 수입개방 반대와 광주문제에 대한 미국의 사과 요구에서 반미 자주화 투쟁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은 27일(목) 부터 있을 출범식을 통해 부정축제자 구속처벌,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민주개혁의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6공 비리 척결, 광주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교육대개혁 투쟁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 반미·반전·평화옹호 투쟁을 중심으로 자주교류, 국가보안법 철폐, 쌀 수입개방 반대 투쟁을 준비할 것을 그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제 청년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는 명확하다.

그것은 혼란과 방황이 아니어야 한다. 4월 보궐선거에서 40% 남짓한 투표율이 보여주듯이 국민의 여론이 김영삼 정권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아니라 지켜보자는 입장이기에 더욱 그 어깨가 무거운 것이다.

<박재철 기자>

몸살 앓고 있는 대생협 자치권

사업잉여금 처분결정권 복지위

이월주장은 대생협 자치권 탄압

지난 89년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출발한지 5년이 되는 대생협이 올해 하기초부터 예년에는 대학당국으로부터 제기된 적이 없었던 복지장학금 선발권 문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대학당국이 '총장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사용에 관하여'란 문서를 통해 대생협에 요구한 △회계관리철저 및 회계자료의 복지위원회위원장(총무처장)에게 제출 △기업체와 거래할때 학생처 장학복지계의 입회 등 8개항을 대생협이 부분 거부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거기다 대생협의 질의서에 대한 대학당국의 답변서에 '비교육적이고 비도덕적 집단'이라 대생협을 규정짓고 있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거센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또한 학생처 김을수 장학주임은 "대생협은 지판기를 비롯한 모든 매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학교의 지도와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생협 조합장 황영욱(인문·사학4)군은 "회계감사와 계약의 결정은 대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정관 27조, 49조) 권한임에도 불구 학교측에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학교측이 주장하는 대생협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을 했고 학교측도 이를 자신들의 착오로 인정하고서도 계속적으로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생협은 지난 21일(금) '대생협 발전을 위한 합의서' 형태로 △회계관리의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결산자료의 공인회계사의 검증 △결산자료의 조합원 총회주인후 학교측이 요구시 제출 △대생협 자치권 보장등 8개항에 걸쳐 대학당국에 제안을 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어제 24일(월) '사업자등록증 사용과 관련하여'라는 문건의 최종 수정을 통해 △계약체결시 학생처 장학복지계의 입회 △대생협 사업잉여금 처분결정권을 복지위로돌 10개항을 고집했다.

대생협이 회계감사와 결산내역 부분에 대한 대학당국의 입장을 수용했음에도 불구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는 사업잉여금 처분결정권을 총무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복지위에서 갖자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대생협 자치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론이다. 그것은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일반적인 원칙 때문이다.

<이현재 기자>

반의자

▲"외대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하고 각 대학마다 저마다의 요구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20일(목) 3백여명의 학생들이 동원재단 특별강사를 요구하며 교육부 함의방문을 갔을 때 교육부 한 관계자가 학생들에게 던진 말이다. 무심코 듣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곰곰히 되씹어보면 '교육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매일 매일 학생들이 공부를 접어두고 교육부 함의방문을 오게 만드는가'라는 말이 된다.

외대발전 투쟁의 주동자는?

광운대를 기점으로 한 대학입시 부정사건으로 대학의 위상은 돈놀음판으로 얼룩질 수 밖에 없었고, 대학의 상처가 곪을 대로 곪아 대수술이 시급한 상황임을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면담을 위해 함의방문을 온 학생들을 가로막기에 급급했다.

▲대학당국 역시 교육부의 태도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사회 여론화 작업을 위해 외대의 문제를 가지고 교문을 나서면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주동자(?)를 징계시키겠다'는 엄포만 놓을 뿐, 동원재단의 예견산의혹 해명과 외대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설치 기준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가슴 아픈 외대의 진실이며, 제단과 학교 관계자가 학생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데 대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사회 여론화라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도저히 학교안에서는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서로의 벽만 쌓이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된 방안"이라는 학생들의 행동이 퍼런 외대의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외대를 살리기 위한 눈물어린 사랑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고정 연구실 하나 없이 해마다 철새처럼 연구실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교수님들. 턱없이 많은 학생에 적은 직원수로 업무에 치이면서도 어느 한곳 제대로 호소할 곳도 없는 직원 선생님들, 전공 관련 사전을 비롯한 서적마저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학업에 곤란을 겪어야 하는 학생들 모두가 힘께 손을 맞잡고 다함께 주동자가 되어 외대의 젊은 상처를 치유할려고 노력할 때 만이 중흥외대는 헌실로 다가올 것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려는 심산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외대인이 있다면 제아무리 '외대발전'을 큰소리로 외친다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외대의 생존권을 건 외대발전 투쟁에 과연 어떤 특정한 주동자가 있을 수 있는지 외대인 모두 가슴 깊이 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김인숙>

제13회

전국대학생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학력경시대회

1. 목적
   1) 대학생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유도함으로써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대학생의 학력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3) 정생적 학술활동을 통하여 대학인의 안목을 넓히고 대학자체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4) 외국어에 숙달된 자질 높은 인재발굴과 아울러 대학내의 올바른 외국어 교육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경시과목 및 내용
   1) 경시과목 :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택1)
   2) 경시내용 : 수필-창의력, 표현력의 평가
      번역-외국어의 국문번역, 국문의 외국어 번역능력 평가
      회화-외국어 청취력, 구사력의 평가
   3) 배점비율 : 수필-30%, 번역-30%, 회화-40%(청취력-20%, 구사력-20%)

3. 경 시 방 법
   1) 참가학생은 응시과목의 3분야(수필, 번역, 회화)에 걸쳐 모두 평가받아야 함.
   2) 수필은 주어진 제목에 따라 해당 외국어로 창작하여야 함(제한시간 60분)
   3) 번역은 외국어를 국문으로,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함(제한시간 60분)
   4) 회화는 1차(청취력), 2차(구사력)로 나누어 평가하며, 2차는 심사위원(내국인, 외국인 포함)의 인터뷰 심사로 함.

4. 출제 및 심사위원 구성
   출제 및 심사위원은 전국 대학(교)해당 외국어학과의 저명한 교수 및 외국인으로 함.

5. 참 가 자 격
   1)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소속대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 경시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용시자는 과거와 동일한 상 또는 하위급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함.
   3) 경시과목과 상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이상 체제하고 귀국한 학생은 참가불가

6. 대 회 일 시 : 1993년 6월 22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7. 대 회 장 소 :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8. 시상 및 발표
   1) 심사발표 : ㉮일시 : 1993년 6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 게시판
      ㉰각 대학(교)으로 개별 통지
   2) 시상내용 : 최우수상 1명(각 과목별) : 교 육 부 장관상-상장 및 부상 1,000,000원
      우 수 상 2명(각 과목별)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상장 및 부상 500,000원
      장 려 상 3명(각 과목별)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상장 및 부상 200,000원
   3) 시상장소 :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4) 시상일시 : 1993년 7월 6일(화) 오전11시

9. 성적우수 입상자 특전
   1) 과목별 최우수자는 각1명과 우수상 입상자중 2명을 교육부 주관의 국비 단기 해외연수를 부여함
      ①연수국가 : 아주 또는 구주지역
      ②기 간 : 동계 방학중 12일 내외(본인부담금 : 참가비 50만원)
   2) 과목별 우수자 2인중 성적순 각 1명에게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국제항공 왕복 탑승권 수여함
      ①영어-뉴욕 ②불어-파리 ③독어-프랑크푸르트 ④일어-동경 ⑤중국어-홍콩

10. 참가신청 접수
    1)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및 총(학)장 추천서 1통(소정양식) 사진2매(반명함판)
    2) 접수기간 : 1993년 6월 7일(월)-6월18일(금)
    3) 접 수 처 :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학과
       전 화 : (02) 965-7047, 961-4083, FAX (02) 960-7898
    4) 접수방법 : ○서울·경기지역은 가급적 직접 접수하기 바라며, 학교별 단위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는 6월18일(금) 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대학(교) 학생처(과), 해당 학과장실 또는 본대학교 사범대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람

주 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후 원 : 교 육 부 협 찬 : 대 한 항 공

사 설

갓난아기 한총련에게 흡산의 사랑과 관심을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학생운동 48년 역사의 결실, 전대협이 새봄을 맞아 이웃 안암골 고려대에서 3일간의 축제속에 '한총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보수와 개량이 넘치는 김영삼식 부르조아 민주주의 시대, 새단장을 하고 신세대 학생운동의 1기를 선언한 한총련 학생운동의 위기가 광범위하게 운위되는 현실속에서 학생운동의 결집체인 한총련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위기극복과 신세대 학생운동의 미래를 책임질 한총련이 현실 위기의 타개책을 조직노선의 변화속에서 해소해 버리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기는 낡은것은 소멸했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데 있다고 했다. 지배계급인 자유부르조아지들이 사회개혁을 선도하며 국민들의 70%이상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고 심지어 재야까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개량의 시대. 이렇게 학생운동은 예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시대에 발딛고 서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당분간 운동의 전망은 보이질 않으며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따라서 학생운동의 위기는 원인도 채 밝히기전에 위기가 재생산되는 시기이다.

급박한 현실속에서 학생운동의 위기극복은 한총련이라는 조직의 형식적인 변화와 간부의 혁신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분화 발전한다고 해서 현재 대학가에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 무기력과 침체, 이념적 동요, 정책적 대안의 부재는 스스로 극복되질 않는다.

변화된 현실속에서 새로운 운동의 내용을 채워 넣는 길. 이것이 현재 학생운동이 꼭 채워야 할 빈공간이며 운동의 남아있는 숙제다.

한총련이 또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는 내용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지금, 더더욱 한총련의 내용적인 강화와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형창출이 필요하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난시기 전대협이 노정했던 문제, 과도한 중앙집중과 사업과정에서 민주성 결여, 일반 학생들의 의견수렴 통로의 부재로 대표되는 투쟁체 중심의 조직운영을 탈피하고 보수대연합 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직운영의 상을 마련하는 것이 첫 시발이 될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은 사회운동을 보조하는 부문운동으로서 학원내에서 학생회의 지도력 강화와 진보이데올로기 전선을 더욱 확장시키는 학원개혁의 내용을 고민하는 것도 될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총련의 내용적 강화와 새로운 운동의 전형창출이라는 과제는 현재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진보·민주진영과 함께 신정부개혁의 한계와 허구성을 폭로하는 가운데 현재 지체되고 있는 민주대개혁·사회대개혁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도 채워질 수 있다.

내용과 형식에서도 균형이 잡힌 한총련 그것은 학생운동의 미래를 찬란히 밝혀줄 것이며 국민에게 다정하고 유익한 벗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학생 특유의 패기, 진보와 수줍고 서투른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새 길을 내딛을 역사적인 한총련 출범식 자리에 외대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외대인의 사랑과 관심은 한총련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관성을 타파하고 올곧게 설수 있도록 하는 유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투고를 기다립니다.

흡산이란 본교의 영문약칭인 H.U.F.S.에 ans을 붙여 외대인을 나타내는 합성어입니다. 에>흡산의 소리는 외대인의 소리,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싣는 열린 공간입니다.

원고지에 5매에서 7매 분량으로 써서 본보 기자실(학생회관 2층)로 금요일까지 주세요.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본사 여론부>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적극적인 신앙태도 필요

타인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더우기 같은 기독교인끼리의 논쟁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미 종교의 문제는 '종교 내의 문제'를 벗어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극단적인 예로 당신은 광신적인 신도와 가정을 이루거나 적어도 친족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왕산의 장승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은 기실 '기독교와 민속문화'라는 보다 넓은 주제의 구체화된 형태이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와 문화'라는 큰 범주의 신학적 주제로 귀결된다.

기독교인이 문화를 접하면서 갖게되는 태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데, 첫째는 분리형, 둘째는 혼합(또는 동화)형, 셋째는 변혁형이다. 첫째 유형은 이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상은 모두 악하니 조금도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된다하여 철저히 세속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다. 두번째 유형은 자기 종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기존 문화에 동화되어 궁극적으려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변혁형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보다 올바르게 바꾸어 나가는 적극적인 형태의 신앙을 말한다. 물론 말할나위도 없이 세번째 형태의 신앙이 가장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입으로는 철저한 분리를 주장해 왔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샤머니즘에 동화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기독교 문화를 서구문화와 동일시하여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기독교를 추종해왔다. 대표적으로 찬송가의 예를 들 수 있다. 외국 찬송가 안의 독일민요, 미국민요들은 기꺼이 수용하면서 우리 민요는 악한 것으로 보았던 것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이상하게 비치는 현상이 되어 있다. 또한 우리 절기에 맞지 않는 11월 셋째주를 미국의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절로 제정한 것은 한국교회의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문화'를 떠나서 존재 할 수 없다. 서구의 민속문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서구의 기독교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그리고 우리의 민속문화적 상황에서 형성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역시 그 민속문화적 상황에서 재해석을 통한 복음화가 요청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미 해묵은 주제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리인홀드 니버, 죤 스토트, 하비 콕스 등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저서와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책이나 소책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을 권한다.

모든 열정이 선이 될수는 없다. 수용할 것을 수용하면서 바꿔 낼 것은 바꿔 내는 적극적 신앙이야 말로 가장 복음적인 신앙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이 재 성
<인문·언어3, 기독학생회>

대중성에 기반을 둔 결정이기를

장승제, 무엇이 문제인가

"왕산 전체학우를 위한 장승제인가? 아니면 장승을 위한 장승제인가?"

장승제 관련 논쟁을 종교적인 시각 즉 미신이냐 아니면 단지 전통문화냐라는 식의 논란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성향이 현 왕산내에 짙게 깔려 있는것 같습니다. 이로써 장승제를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상당수의 학우들이 대화와 용납보다는 오해, 내지는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본다.

왕산발전대동장승제 준비위(이하 장주위)는 5월13일자 대자보에서 "장승제는 왕산의 문예소모임들의 모임인 왕산문학예술 문예소모임들의 모임인 왕산문학예술 총연합(학·문·연) 주관으로 준비되고 총학생회, 6개단대와 자치기구가 후원하는 행사이며, 그 목적은 '전체'왕산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어 왕산자주화의 토대를 만드는데 있다고 발표했다.

그럼, 장준위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번 장승제의 행사주체는 학·문·연인 셈이고 대상은 전체왕산인이며 왕산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자치기구들이 이를 후원하여 결국 이것을 통해 '대동'과 '왕산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장승제가 기획과 의도 그리고 경비조달등에 있어서 정당하였는지를 냉철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행사주체에 있어서 이번 장승제의 기획은 일반학우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장준위측과 이를 후원하는 총학생회측은 이번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기획(?)으로 일반학우들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하였다. 밀실기획이 부당하다 함은 장승제가 전체 왕산인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는 점과, 왕산발전과 다원화된 캠퍼스의 대동을 목표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의 투입이 결국은 일반학우들의 자치회비에서 충당된다는 점이다. 왕산인의 돈이 투자되는 사업인만큼 총학생회와 강준위측은 애초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한는 자세를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놀라고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행사 대표들이 모인 운영 회의에서 철저히 여론수렴이 배제된 형태로 이번 장승제가 기획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준위측의 무모한 발상에 대해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번 기획이 장승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왕산발전'과 '하나됨'입니까? 또 장승을 위한 장승제입니까? 아니면 전체 왕산인을 위한 장승제입니까?

장승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꺼리끼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고려했어야 한다. 이로인해 발생될 불필요한 분쟁과 감정싸움에도 불구하고 장준위가 장승제를 기획·감행함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혹 이번 장승제를 통해 기독인들을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기독인들의 여론심판에 올려놓아 기독인들에게 반감을 가지도록 하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셋째, 장준위측의 무모한 발상과 이를 후원하는 각 자치기구들의 모습은 한총련의 결성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부당한 행정임을 말한다.

한총련출범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 소식지에서는 "전대협과 한총련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전대협보다 의사결정 과정이 넓혀지고 기층화되는점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전대협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투쟁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쟁을 최대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한총련의 설명과 장승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보여준 우리를 대표하는 기구들의 모습은 상당부분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학생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상실한 이때 이러한 한 총련의 결성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당위적인 논리로 학생들을 몰아 붙이던 풍토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한총련의 취지와 지향점들이 왕산에서도 올바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

임문수<자연·화학2, 예수전도단>

흡산의 소리

후회없이 꾸려 나가는 알찬 삶이기를

새내기라고 불리며 다소 어색하고 수줍은 듯이 대학의 문턱을 넘어서던 때가 바로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석달이 지났고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처음의 서투르고 멋적어하던 모습의 새내기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석달이라는 시간동안 그만큼 대학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소모임이다, 동아리다해서 모두들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 새내기지만 외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기도 하며, 또 학업에만 열중하는 학우들도 여럿 보인다. 나 역시 소모임 활동으로 바쁜 편이고 선배님들의 권유 일종의 호기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애교심으로 외대 발전을 위한 집회에 몇 번 참여했었다.

그렇지만 새내기로서 석달간의 대학생활 끝에 돌아본 내 모습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바쁘다는 핑계로 저만치 밀려나 있었고, 또 지금까지 너무 몰랐던 탓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도 했다. 한편으론 두려움에 막상 다가서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 이러한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새내기들에게 공통된 점들이 아닌가 한다.

나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면서 모든 새내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몇 달뒤 대학1년을 마감할때, 정말 후회없는 새내기 생활이었다고 자부 할 수 있을 만큼 남은 시간을 알차고 후회없이 꾸려나가자는 것이다. 주위의 휩쓸림보다는 각자 자신의 뚜렷한 의지를 갖고서 말이다.

정인경<서양·영어1>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주위의 상황, 외부의 곤란을 배제하기는 힘든 것일까?

이러한 물음을 받는다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 사랑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주위의 상황과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인가.

이전의 철학자나 사상가 그리고, 예술가까지 더 나아가 인류의 선조들 모두 '사랑'이라는 물음에 대해 정확히 답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전무할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다루기 힘든 문제이고 생각하기 고달픈 골치거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말대로 되지않는 것중의하나도 아마 '사랑'바로 이것 일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신뢰'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랑'은 사랑은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사랑의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가자면 사랑에는 분명 '신뢰'라는 큰 디딤돌이 필요하다.

사랑을 할때는 주위의 상황을 너무도 큰 짐으로 받아들이기 일쑤이다. 주위의 상황은 그 사랑을 굳게하기도 하고 연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이것 하나만 더 기억하자. "사랑의 주체는 분명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사랑은 너무도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했을때만이 그 고통을 단숨에 물리칠 것이다. 사랑을 하는 자는 주변의 고난을 용감히 맞서야 한다. 주위의 고통을 하나, 둘 이겨나아갈 때 그 결과의 열매는 '값진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가슴 속에 새기며, 사랑은 서로를 절실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바로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사랑은 바로 인생의 횃불이며 사랑 자체가 삶임을 잊지말자

김유신<서학·항가리어1>

백지 대자보

오늘처럼 맑은 오월이었 다.
일간지도 방송도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팔십년 오월의 광주는 피로써 얻은 민중의 승리였다.
—한교 90—

오늘도 내일도
일제히 일어나
팔팔한 내 청춘을 조국에 바치노라
—팔팔이—

오판(誤判)을 일삼은 대머리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만행
팔팔 끓는 피의 함성. 들리는가!
—바뻠이—

오라질!
일본놈도 아닌데
팔팔하게 살아있는 책임자가 웬말이냐
—무책임자가—

오랫 만에 TV를 봤는데
일언지하 김영삼아저씨

5·18에 대해 "용서하고 화해하자"이러는 거다.
팔팔 뛰시며 우리 아버지는 책임자 처벌 없인 "절대 용서 못해!"하신다.
—효심이—

주제 : 오·일·팔 3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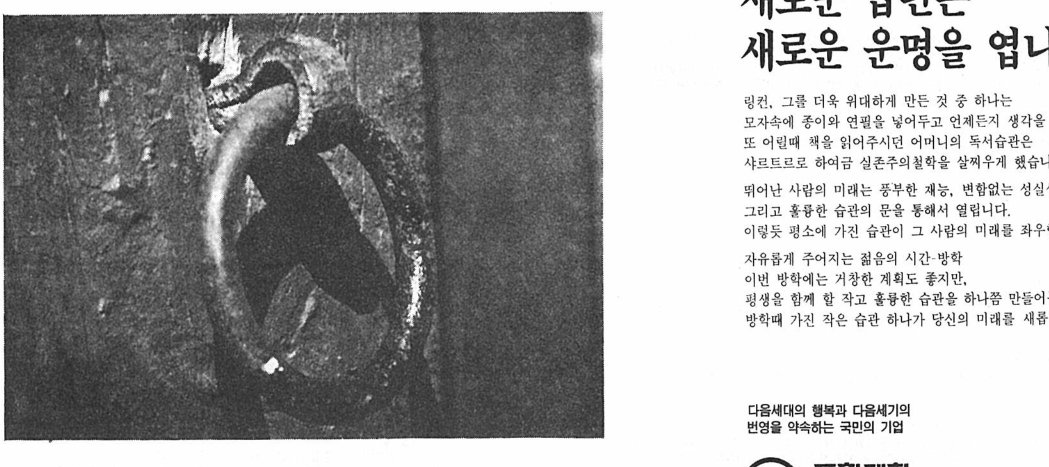
오늘 또다시 13년전 그날이 오면

일제히 들고 일어섰던 그때, 민중이 생각난다.
팔십년 그대는 우리의 넋이요, 혼이다.
—훈금이—

오월은 아직도 원한서린 두눈을 감지 못한채
일년이 지나면 변함없이 살아있는 자의 가슴으로 파고들어
팔십년 광주를 편안히 망월동에 잠재워 주길 염원한다.
—강—

오월의 열기로
일어나
팔월의 통일로
—망나니—

POSCO메세지 종강편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엽니다.

링컨,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 것 중 하나는
모자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생각을 정리했던 습관이었습니다.
또 어릴때 책을 읽어주시던 어머니의 독서습관은
샤르트르로 하여금 실존주의철학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의 미래는 풍부한 재능, 변함없는 성실성
그리고 훌륭한 습관의 문을 통해서 열립니다.
이렇듯 평소에 가진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주어지는 젊음의 시간-방학
이번 방학에는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평생을 함께 할 작고 훌륭한 습관을 하나쯤 만들어봅시다.
방학때 가진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열 수도 있습니다.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
POSCO

서울총학, 교육부 항의방문 가져

학생측 본교 동원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대학당국 학교 명예실추 행위…주동자 징계 어름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0일(목) 노천극장에서 '교육부 장관 면담과 교육부특별감사를 위한 항의방문 출정식'을 갖고 광화문 교육부 청사로 항의 방문을 다녀왔다. 이어 학생들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탄원서와 관련서류를 전했다.

'전무이사 퇴진과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이를 막으려는 대학당국간의 줄다리기가 긴장감 속에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목) 오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교육부 장관 면담과 교육부 특별감사를 위한 항의방문 출정식'을 갖고 교육부 항의 방문을 다녀왔다. 이날 항의방문에서 이철훈 총학생회장외 4인은 '교육시설 미비와 예결산의 파행적 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동원육영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관련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이러한 학생회의 활동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학생들을 제지해 온 대학당국은 교육부 항의방문을 갈 경우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이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학생회 탄원서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재단 및 학교 예결산의 부정의혹 △동원육영회의 인사정책등 제반 문제점 △대학설치 기준령에 따른 미비점 등이다. 이 내용은 그동안 예결산서에서 드러난 부정의혹과 교육부보고자료와 학생측 제출자료의 차이점 등을 집중 추궁한 것이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17일(월) '학생측 요구안에 대한 학교책임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오후 3시 30분부터 교수 회의실에서는 서울캠퍼스 학·처장들과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간담회가 4시간동안 열렸으나 공청회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단 예결산의 수익 축소 부분, 학교발전 의지표명을 공청회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학생측과 "학생 간부와 학·처장들이 모여 이런 문제를 협의후 해결이 안될 때 절차와 의제를 확정한 후 공청회를 열자"는 대학당국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사회를 맡은 이강혁 총장은 "학생들의 학교와 재단에 대한 불신이 대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며 우선 간담회를 통해 불신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상준 학장(사범대)은 "예결산 공개미비와 의혹들이 불신의 원인이며, 공청회는 교수회의에서 열기로 한 만큼 이자리에서 의혹점을 학생들에게 해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작년 합의서에 대한 묘연한 해석도 나와 이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안병만 부총장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재단 예결산 공개는 작년 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예결산 공개의 범주를 학교회계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 서울캠퍼스의 지속적인 면적확대와 관련해 한형곤 학생처장은 "올해 개정된 건축법에서 건폐율 완화조치로 현재 이문동 부지에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며 "현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면적확대를 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을 폈다.

합의서에 대한 또다른 해석, 중기발전계획안의 발표 등으로 논의의 초점이 공청회의 절차와 의제에 맞추어지지 못한채 합의사항 없이 끝난 이 간담회는 학생들에게 교외투쟁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학교발전은 모든 구성원의 공통된 희망인만큼 전제조건과 절차에 관한 논의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은 기자>

<용인 고시원 '청람제' 그 실태와 개선방안>

문명속의 야만

열악한 고시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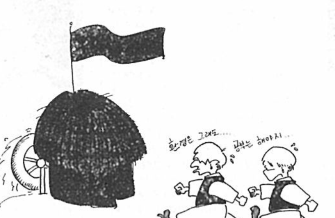
용인캠퍼스 교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명수당옆 '망각의 산책로'로 불리우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허름한 두개의 건물이 눈에 띈다. 건물 뒷편은 꽤 큰 각도로 경사진 산비탈이 접해있어 건물은 반지하 상태이다. 또한 주위에는 동물우리로 사용됐던 철망과 말뚝들이 곳곳에 박혀있고 울창한 잡초들이 우거져 있다.

이곳이 바로 용인캠퍼스 고시원 '청람제'이다.

용인캠퍼스가 세워지기 전부터 사슴목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매입한 후 그 건물들의 내부만 변경해서 고시원으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실은 아직 재래식이고 샤워시설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세면장은 담장한장없이 외부로 노출돼 있다. 건물내부 천장은 비만오면 방바닥으로 빗물이 떨어지고 건물내 외부 벽은 젓가락이 쉽게 통과할 정도로 갈라져 있는 상태다. 언제 비탈진 산에서 흙과 바위들이 건물을 덮칠지 모르고 언제 천장에서 바닥까지 갈라진 벽들이 무너져 내릴 지 모르는 상황이다. 거기다 배수시설이 부재한 상태라 학생들의 생활폐수는 맑고 아름다운 명수당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곳에서 30명의 학생들이 고시공부에 열중이다.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들, 화창한 날이면 밤늦게까지 명수당주위에서 술마시고 노래하는 학우들의 젊음의 소리들, 방음장치가 전혀 이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가 잘 될 리가 없다. 책을 두권, 세권 놓고 공부해야 할 책상은 노트 하나 놓기도 비좁다. 침실과 열람실을 하나의 방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거기다 겨울방학이면 난방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거주하기 힘들고 여름방학이면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어쩔수 없이 방학때만 되면 신림동 고시원촌으로, 학원으로 모든짐을 싸고 옮긴다.



'청람제'실장을 맡고있는 김경황군은 "작년부터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십번 만나면서 고시원의 현 실태를 호소했습니다. 거의 모든 타대학처럼 고시원 단독건물신축을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당장이라도 성의만 있으면 실현할 수있는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 개선등 작은부분들을 요구했습니다. 이번학기초에 모든것이 개선된다는 말씀들을 믿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못한다.

이러한 고시원생들의 요구에 대해 대학당국에서는 투자한 만큼의 성과, 즉 많은 고시합격생이 배출돼야 투자할 의지가 생길것 아니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시설개선을 약속하고도 그 실행이 지지부진할 뿐더러 교육을 투자한 만큼 이익을 바라는 장사속으로 여기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사실 다른 대학들처럼 고시반마다 전담 지도교수도 부재한 실정이고 특강, 모의고사 한번 제대로 실시해본적도 없다. 시험지를 학생들이 직접 학원에서 입수해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나마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김군은 수차례 걸친 시설개선 요청서를 작성해서 대학당국에 보냈고 고시원발전을 위한 교수 학생간담회도 추진해 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껏 어느것 하나 이뤄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고시원을 담당하는 인문·사과대 교학과 조찬일주임은 "명목상 고시원담당을 맡고있지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일은 한정돼있다. 교학과 일도 바쁜데 고시원발전방안에 대한 신경을 쓸 여유도 없고 내 권한도 아니다"라며 고시원 담당 전문직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교 용인캠퍼스 고시원은 사시반, 행시반, 외시반, 기술고시반, CPA반등 총인원30명으로 실제 매년 고시실입실지원자의 20%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당국의 재정역시 1년예산 1천만원에 불과해 현상유지로 고시원자체운영도 힘든 형편이다. 이런상황에서 교수초빙 특강한번 실시할 엄두도 못내는 것이다. 거의모든 대학들의 고시실 수용인원이 1백여명이 넘고 그 재정또한 본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책상하나에서 건물까지 어느것하나 타대학과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게 본교 고시원의 현실이다.

진정 대학당국이 학교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벌써부터 개선됐어야 할 부분들의 약속이행과 고시원에대한 최소한의 재정지원, 그리고 제2차 중기발전계획안에 반드시 고시원 단독건물신축을 명시하고 빠른시일안에 이를 추진하기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기자〉

용인, '왕산 발전 대동 장승제' 개최

기독신자들, 거센 반발로 논란 많아

용인캠퍼스 문학예술연합회에서 주최하고 '93왕산발전 대동장승제 준비위원회(이하준비위)가 주관하는 장승제가 오늘 25일(화) 오전 9시부터 지신밟기, 각 단대건물돌기를 시작으로 개최된다.

어제 전야제를 통해 장승을 멜 수 있는 받침목제작과 장승이 세워질 터 고르기를 마친 장승제준비위는 이에앞서 과별 떡쌀모으기, 과별 요구안을 담은 만장작성, 장승제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진행요원 모집등 각 단대 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자치기구들의 대중적 참여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왔다. 준비주체를 맡고 있는 김용덕(서학 : 노어4)군은 "장승제 개최의의에 대한 많은 학우들의 공유를 위해 학생회관 옆에 장승제작 장소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와서 직접 장승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며 장승제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을 부탁했다.

이어 장승제는 학원자주화 사회민주화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새긴 각 과 만장을 앞세우고 2백여명의 진행요원들이 장승을 메고 교정 곳곳을 행진하는 후 학생회관앞에 장승은 세워 진다. 장승을 세운후에는 '왕산 풍물패연합' 소속 1백여명의 학생들이 공연하는 풍물판굿과 탈춤, 민속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성대히 치뤄질 이번 '93왕산발전 대동 장승제'는 그동안 7개 기독학생동아리를 비롯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 장승제를 반대하는 김현호(동학·중국어 4)군은 대자보를 통해 "장승은 왕산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앙이다른 학생들사이에 분열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신은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소모적 행사를 그만두고 그 비용을 장학금이나 도서구입으로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장승제 준비위측에서는 "장승제는 예로부터 온 동민이 한데어우러져 공동체의 신명을 창출하는 대동의장이었고 오늘에 와서 이러한 민속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장승은 왕산학우들의 학원자주화요구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소망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기독학생회(SCA)회장 이수미(서학·영어 3)양은 "한국사회에서 민족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장승을 신의 차원으로 논의되는 것을 잘못"이라며 "민족정서를 보듬어 안고 절음발이 신앙을 이제 극복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양은 "준비위측도 장승제에 대한 많은 학우들로 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재했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동구어대, 특위속에 학생참여 보장 요구

단대분리이후 발전방안 마련해야

동구어대 단대분리에 대해 지금껏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대학당국이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위한 거교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당국의 특위제안에 대해 동구어대 학생회 정책국장 박준식(서학·폴란드어 4)군은 "학교측의 입장변화는 우 리학우들의 단결된 투쟁의 결과다"며 "합법적 공간으로 특위를 최대한 활용해 이후 좀더 강력한 단대분리 요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동구어대 학생회는 현재의 특위체계, 즉 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만으로 구성된 특위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 기구속에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공간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제 단대분리에 대한 연구와 고민보다는 단대분리후 동구어대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지금껏 교육개선위원회와의 계속적인 대화속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게 사실임을 알고 이후 지속적인 만남의 계기를 이용 교수들을 추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입장과 대학당국의 태도에서 우려되는 것은 88년부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며 단대분리를 미뤄온 대학당국의 과거행적을 돌이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위속에 학생들의 명확한 참여공간 마련과 단대분리 이후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재하다면 동구어대 단대분리는 빠른시일안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어대학생회는 이후 △빽지달기 △과 학년학생회 건설 △자기과 교수만나 설득하기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기에는 반드시 단대분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동구어대 학생회장 김기우(서학·체코4)군은 "형식이 제2 서양학대가 됐건 동구어대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이 중점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말을 맺는다.

대학당국이 중기발전방안으로 내세운 안에도 명시돼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 문제는 대학당국의 성실한 자세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 총여, 대중교양 신문 발간

여성문제의 대중적 확산 위해

용인캠퍼스 총여학생회에서는 20일(목) 대중교육신문지 '우리드리'를 발행했다.

월간 4면인 '우리드리'는 여성운동의 현황과 방향, 여성문제에 대한 책소개, 페미니즘영화 등의 소개로 많은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정기자 3명의 부족한 인력이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해방처녀'등의 각 소모임들의 활동으로 방중 휴간을 제외하고는 매달 중순즈음 어김없이 발행하겠다고 한다.

여성운동의 문제점과 대중적인 여성에 대한 문제점 인식확대를 취지로 발행한 '우리드리'는 기관지가 아닌 대중적인 신문으로 내용을 강화하여 남·녀학생 모두의 접근을 바라고 있다.

제5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농협이 전국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우리의 농업·농촌·농협발전에 관한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논문공모에 대학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논 제 : 5제중 택일
가. 금융자율화에 따른 농업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나.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황과 발전방안
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라. 한국농업 기계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마. 농촌인구의 전망과 영농후계자 육성방안
2. 응 모 자 격 :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3. 응 모 마 감 : 93년 9월 30일(당일 소인분도 유효)
4. 당선자발표 : 93년 11월 1일 (당선자 개별통지 및 농민신문 게재)
5. 시 상 : 93년 11월 초순(예정)
●최우수작(1편) : 상금 100만원과 상패
●우 수 작(3편) : 각 상금 50만원과 상패
6. 응모요령
가. 응모매수: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나. 제 출 처: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우편번호 100-707)
7. 기 타
●논문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재학증명서 1통 첨부)
●응모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됨.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로 문의바람
(전화:(02)397-5654).

농민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농협중앙회

외국어 교육 1번지
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어학 학원
英語·日語·中国語
●TOEFL ●영어실력기초
●TOEFL L. C. ●성문기본영어
●TOEIC ●성문종합영어
●AFKN 청취 ●영어회화(한국인)
●TIME ●영어회화(미국인)
●Voc. 22,000 ●일본어 초·중·고급
●영어순해 ●일본어회화(일본인)
●영작문연구 ●일본어 독해
●실전수험영어 ●중국어 초·중·고급
ECC영어회화과정
-정원제·Level Test 실시
-전강사 Native Speakers
일본인 일본어 회화과정
개강 : 매월 1일(수시등록·수강)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
전화 : 276-0509(代)

제3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 속에 내일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1924년 창업한 이래 꾸준히 성장·발전해 온 삼양사가 금년에도 대학생 여러분들이 상아탑에서 연마한 학문적 이론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장을 마련, 제3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참가대상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2. 논문주제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
●대학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산학협동방안
●국제화에 따른 인재 양성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방안
●남북 경제 통일시의 대북사업화 방안
3. 응모요령
●원고는 타이프나 워드프로세서로 30~40매 내외로 작성 (※제출시 2~3매 내외의 요약분 첨부 요망)
4. 응모마감
●1993년 9월 3일(금)
5. 제출처
●당사 인사부 인사과 논문현상 공모 담당자
●우편접수시 당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63 (주) 삼양사 인사부 인사과, 우편번호 : 110-725)
6. 당선작 발표
●1993년 10월 5일(화), 당선자 개별통지 및 월간지 게재
7. 시상내역
●최우수작 1편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우 수 작 1편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가 작 3편 : 상패 및 상금 50만원
●응모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제공
8. 기타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국내외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합니다.
●논문 응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EL : 740-7155, 7157)

삼양
●주식회사 삼양사(化纖,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삼양중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디완 살만 파이버 ●삼양그룹중앙연구소 ●삼양그룹의약연구소 ●삼양그룹선일연구소 ●양영회 ●수당장학회

외 대 학 보

제606호 1993년 5월 25일 (화)
제3종 우편물 (가) 급인가

전대협 의장으로 부터 듣는 전대협 역사

역사를 움직인 전대협 6년사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으로 부터 듣는다.

전대협 1기 사업은 주로 대선투쟁에 집중되어 있었다.

87년 가을, 선거국면이 가열되면서 우리는 6·29선언 이후 급격히 이완되는 국민대중의 힘을 재결속하고, 정세의 주도권을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던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를 재고립시키기 위해, 또한 민주정부수립의 길과 민주정부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김을 초청하여 10만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대협의 생명은 단결입니다.

선택한 방안은 정책공청회의 개최였다.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 국민대중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판단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양김 평가의 장으로 만들지는 견해가 제출되었다. 극심한 문제 제기가 발생했다. 후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분열의 빌미를 주는건 아닌지, 오히려 군부독재에 대한 투쟁을 선행해야 되지 않나 등등.

1987년 9월 26일 밤! 8월 19일 대전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닻을 올린지 불과 38일만에 최초의 비상총회가 개최되었다. 안건은 9월 27일로 예정된 양김 초청의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정책공청회'를 강행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였다.

갈수록 태산인 격으로 김영삼씨가 불참을 통보해와 김대중씨만을 상대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더욱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6월항쟁의 한 복판에서 단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강고한 단결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우리는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했다.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모여든 총학생회장들은 밤을 새워 토론해야만 했다. 당시 정국하에서, 우리들이 주최하는 이행사가 정국에 미칠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오후 9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을 꼬박 새워가고 있었다.

결론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전대협의 건설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단 한번의 표결도 없을 정도로 견해가 통일되었고, 또한 흔쾌히 모든 것을 합의해왔던 우리에게도 어느덧 표결은 불가피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미미한 차이로 이끌어진 결론은 정책공청회의 취소였다.

이제 날이 밝으면 각곳에서 10여만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올 판이었다. "국민대중과의 위약! 공신력의 추락! 시민들의 항의와 분노!" 이러한 날말들이 나의 머리를 무겁게 짓눌러왔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결정을 사수했다. 격분한 국민대중 앞에 욕을 들을지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다. 우리는 비록 약속을 어겼지만 군사독재의 종식을 위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결해서 싸워가겠노라고, 시민들은 섭섭해 하면서도 큰 박수로 성원해 주었다.

우리는 10월 3일 부산에서 다시 모여 다시 단결된 힘으로 전대협을 사수하고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단결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비온 다음 땅이 더욱 굳어지듯, 회의가 끝나고 한 밤중에 우리 모두는 광한리 해수욕장에 나갔다. '민족해방가' '임을 위한 행진곡' '동지가' 등등. 울려 퍼지는 노래속에 우리는 서로가 다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분열해 나갔다. 그러나 이 날의 경험은 나에게 어떤일이든 궁극적으로 단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

오영식 전대협 2기 의장으로 부터 듣는다.

'남북학생회담' 성사 투쟁은 통일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

88년 투쟁의 3대 과제는 반미운동의 대중화, 반독재 민주화, 공동올림픽을 통한 통일운동의 개척이었다. 88년 전대협 2기 앞에는 또하나, 전대협을 백만학도의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조직적 과제가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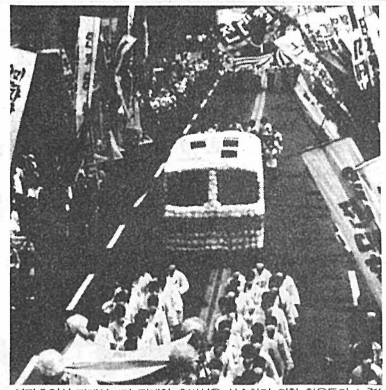
88년 서울대 총학생회선거에서 총·부학생회장후보로 출마한 김중기, 유재식씨의 '남북 청년학생 체육대회'제안은 이러한 투쟁과제, 조직적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사랑하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우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공개서한은 그런 의미에서 88년 투쟁의 새로운 시발점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중기씨는 총학생회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4.19기념투쟁을 거쳐 5월로 접어들자, 전대협 지도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남북 청년학생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남북학생회담'이 6월10일로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이를 위한 대중적 열기와 분위기를 추동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우기 당면한 5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할 상황에서 소위 통일운동과 5월투쟁을 전술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는 것이 벅차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땅 구국운동의 역사가 그러하듯, 이같은 난국을 타개할 획기적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5월15일 조성만열사 할복자살 사건이었다. 조성만열사의 죽음은 그간 느슨하게 진행되던 통일운동이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미 그 전날인 5월 14일 88년 들어 최초의 전대협 집회를 고대에서 개최하고 남대협을 중심으로 "5월에서 통일로 총진군하라! 백만학도여"라는 구호를 높이 치켜든 전대협은 이제 '6.10 남북 학생회담'성사 투쟁으로 총결집하게 된다.

6.10과 8.15 두차례에 걸친 '남북 학생회담'성사투쟁은 확실히 우리 운동에 통일운동의 지평을 활짝 열어 제친 역사적 쾌거였다. 종로, 을지로 등 서울시내와 서울역, 홍제 홍은동 등 도심 곳곳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부르며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연좌 연와 시위를 벌였던 모습과 '20세기의 마지막 빨치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피땀어린 투쟁을 전개했던 국토순례단의 전국적 투쟁의 모습 등…. 실로 이땅의 청년학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특히 전남대의 '오월대'와 조선대의 '녹두대'학우들은 여러 풍문들과 더불어 매 집회때마다 가장 선두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모든 학우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했다. 덧붙여 8월14일 전대협 2기 발족식 집회때 수만명이 어둠속에서 일제히 라이터를 켜 '불꽃의 물결'을 이루어 낸 감동의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때의 감동과 투쟁속에서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그것이 집회때 사용하던 조명시설의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었다. 이렇게 상반기 통일투쟁을 전개했던 전대협 2기는 하반기로 접어들어 전·이 구속투쟁으로 힘을 집중하게 된다. 아다시피 전대협은 88년 하반기의 정세속에서 5,6공의 연결고리이자 취약고리를 타격해 나가는 민주화투쟁에서도 최선봉에 서서 훌륭한 투쟁을 전개한다. 지도부의 삭발투쟁을 통한 결연한 의지가 학우들의 투쟁과 결합해 청문회를 강제해 내고 노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오영식
<전대협 2기 의장>



신장호열사 장례식 4기 전대협 출범식을 사수하기 위한 학우들의 노력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임종석 전대협 3기 의장으로 부터 듣는다.

전대협 3기의 역사는 '통일운동의 대중화, 구체화 그리고 고양'의 시기였다.

5·3 동의대 사건등으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89년 전대협은 '버티기 싸움'식이었다. 버티기 싸움을 통해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 3기 전대협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도 평양축전참가 투쟁이다. 전대협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양축전에 참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88년 6·10, 8·15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을 거치면서 한껏 고양된 통일의 열기를 평양축전으로 이으려는 것이다. 7월 1일 평양축전이 개막되기 전 전대협은 끝까지 평양축전 참가를 투쟁으로 실현하겠다는 결의로

환상·신비의 전술 추억 남긴 통일운동의 고양기

6월 29일, 30일 한양대에서 세찬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7일 부터 노태우정권은 한양대 주변을 지나는 자동차는 우회하도록 하였고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은 그냥 통과하게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환상의 전술'로 길이 남는 한양대 진입작전이 실행되었다.

29일 오후 6시에 정확하게 뚝섬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맨 앞칸에 노란색 모자를 쓴 안내요원이 타고 있었다. 그 모자를 신호로 1천 5백여명의 학우들을 태운 전동차들이 6시 뚝섬역에 도착하자 학우들은 철로로 뛰어내려 한양대를 향해 1.2km를 뛰기 시작했다. 철로를 따라 달려오는 광경은 거대한 사람의 물결을 이루어 한양대를 향하고 있었고 어안이 벙벙해진 전경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 한양대 진입투쟁은 이후 '환상의 전술'이라 불리게 된다.

그날 11시, 5천여명의 학우들이 비를 맞으며 '평양축전 참가 백만학도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임수경대표의 방북을 알렸을 때 학우들의 기쁨에 찬 함성소리와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부른 '전대협 진군가'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30일 임수경대표가 평양에 도착한 시간, 전경들이 한양대로 처들어와 수천의 학생들이 연행돼가고 나머지는 인문대로, 나와 전문환 축전준비위원장은 인문대 하수구로 피해 있었다. 하룻밤동안 삼국지 동원갖 병법을 생각했었는데 한양대에 남아 있는 7백여 학우가 한꺼번에 탈출하는 방법을 택해 한양대를 빠져 나가기로 했다. 3층 포위막을 7백여 학우들이 하나로 뭉치서 빠져 나갔을 때 전대협 학우들의 단결력을 또한번 느꼈다. 더욱이 전경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인문대 옥상에 남은 27명의 학우들에게서 전대협에 대한 백만학도들의 단결력이 다시 한번 확증되었다. 이 탈출을 '신비의 전술'이라고 부른다.

전대협 출범식 무렵 충북대에서 전대협 탈퇴를 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다. 임기말을 앞둔 충북대 학생회장을 우익세력이 매수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곧 학생들의 3일간의 휴업으로 총학생회장이 탄핵당하고 단대장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지는 등 한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전대협에 가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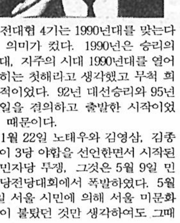
전대협출범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일은 충청북도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단이 눈물로써 전대협을 사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하는 장면이었다.

출범식 하루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이철규 학형이 변사체로 발견되어 그 해 5·6월 이철규 열사의 사인진상 규명과 광주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70여개 대학 6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사상 유례없는 대단식 투쟁이 전개되었다. 단식하면서도 초인적 의지로 버티던 학우들, 눈물을 머금고 지지해 주던 시내 각층의 시민들, 이 모든 것들이 전대협이 '노태우 정권 타도' 투쟁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었다.

<정지혜 기자>

송갑석 전대협 4기 의장으로 부터 듣는다.



전대협 4기는 1990년대를 맞는다는 의미가 컸다. 1990년은 승리의 시대, 자주의 시대 1990년대를 열어젖히는 첫해라고 생각했고 무척 희망적이었다. 92년 대선승리와 95년 통일을 결의하고 출발한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1월 22일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이 3당 야합을 선언한면서 시작된 반민자당 투쟁, 그것은 5월 9일 민자당전당대회에서 폭발하였다. 5월 9일 서울 시민에 의해 서울 미문화원이 불탔던 것만 생각하여도 그때

출범식 참가 위해 목숨 건 신장호 열사 가슴 깊히 남아

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장호 열사를 낳은 전대협 출범식, 세종대 학원지주화 투쟁, 범민족대회성사투쟁 등 4기 전대협은 한마디로 자랑찬 투쟁의 역사였다.

투쟁과 승리의 90년 역시속에 아직도 가장 가슴깊이 남아있는 것은 신장호열사의 죽음이다.

광주항쟁 10주기 계승의미에서 4기 전대협출범식은 5월 19일 전남대에서 열기로 하였다. 19일을 전후하여 사상 유례없는 원천봉쇄가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광주로 향하는 학우들은 무조건 막고보지는 것이었다.

전국 각 도시의 역, 터미널과 광주시내 전역에 전경이 있었고, 전남대는 이중 삼중으로 전경들에 의해 포위당했다.

그러나 19일 저녁, 전남대에 도착한 학우들은 3만명이 훨씬 넘었으니 이들은 정말이지 눈물나는 고생끝에 전남내로 모여든 학우들이었다.

어떤 학우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였고 나주를 돌아오던 학우는 영산강을 헤엄쳐 건너기도 하였다. 부산에서 온 학우들 중에는 조선대학교 정문 쪽 철도로 뛰어내리기도 하였고 기차를 중간에 세우기도 하고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였다.

용인·성남지역 대유공업전문대 신장호 학우도 기차를 뛰어내리다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사실 나는 대유공업전문대의 이름이 낯설었고 그 학교가 전대협투쟁을 앞장서서 이끄는 학교도 아니었다. 그러한 외로운 조건에서 목숨을 걸고 전대협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전남대로 오다 그는 운명을 달리한 것이었다.

광주 곳곳에서 전경들과 싸우고, 전경과 대치한 상태로 전남대를 둘러싸 학우들을 보호해 준 광주시민들이 있었기에 전남 도경국장도 밤이 되어서는 마지못해 집회를 허가한다고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

90년 범민족대회는 89년 평양축전 참가의 승리에 이어 또하나 커다란 투쟁의 성과를 낳았다. 11월에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통일운동기구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을 탄생시킨 것이다. 8월 4일 부터 전국을 돌면서 통일기운을 고양시켰던 통일선봉대, 낮에는 전경과 피터지도록 싸우고 밤에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자고, 걷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와 연세대에서 범민족대회를 치루었던 것이다. 통일선봉대의 구호는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이었다. 학원자주화 투쟁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1백67일에 이르는 세종대의 총파업 투쟁, 실로 4기 전대협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정지혜 기자>

김종식 전대협 5기 의장으로 부터 듣는다.

"전대협 5기는 열사들의 피와 전사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특히 91년 5월은 그 어느해보다도 힘겹고 슬픈 기억이 많습니다. 열사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김종식 전대협 제5기 의장은 91년도를 이렇게 소개한다. 충남 홍성 교도소 777번. 여느 의장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련한 법률, 공문서 위조법, 화염병 제조 및 사용에 관한 등의 위반에 대한 꼬리표가 붙어있다.

"후배들이 보고싶다. 사랑한다"를 연발하며 시종일관 눈시울을 붉히는 쇠창살 너머의 그의 모습에서 아주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과 죽음

그렇게도 말렸던 분신 그러나 열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도 불사하는 전대협의 신화를 함께 볼 수 있다.

5월, 전국을 돌아다니며 "죽지말자, 분신하지 말자, 끝까지 살아서 싸우자"고 외쳤던 그.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그 죽음을 순결하게 생각한다.

광범위한 경제위기설의 유포를 통한 노동자에게의 고통전담을 주장하며 이데올로기 공세와 아울러 물리적 탄압을 자행하던 정권에게 91년 5월을 다시는 그리고 싶지 않은 그림이다. 그해 4월, 정부는 수서비리, 페놀방류등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북방외교의 성공을 통해 무마시켰다. 정권의 유화제스처는 국민의 탈정치화와 맞물려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려는 찰나 강경대 열사의 죽음을 맞는다.

강경대열사의 죽음으로 시민과 학생들의 잇따른 시위와 투쟁, 또 한편으로 계속되는 분신과 살인진압으로 술렁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6·3정원식 총리서리 사건으로 정권의 여론정책에 말려들어 주춤하기도 했지만 "타도 노태우, 해체 민자당"을 소리높여 외쳤던 그때를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술자리가 있을때마다 동료들에게 미리 겔포스를 나눠주는 습관이 있어 '겔포스 의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리 약먹고 왕창 술을 먹자는 건지 아니면 위를 보호하자는 의도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그가 의장직에 있었을 때 검문소를 통과하다 검문에 걸린 적이 있다. 컴퓨터 조회까지 하고 수상하다는 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전경은 김종식의장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경찰서로 가자는 제의를 받아들였고 사건은 그 차 안에서 발생한다.

"저 경찰서 가면 안되거든요! 제가 전대협 의장입니다."

갑자기 사색이 된 전경은 자신이 건국대 89학번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미 경찰서에서는 기다리고 있을텐데 전대협의장을 자신이 체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놓아주자니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갈팡질팡하였다.

결국 납치된 것으로 위장하기로 하고 전경은 그길로 서울까지 올라왔다. 서울에서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하고 그는 버스를 타고 내려갔다.

그런 사건들에서 느끼는 백만학도의 힘과 사랑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많은 후회와 반성을 남겨놓기도 했던 5기 전대협은 거리를 물들인 열사들의 피 만큼이나 수많은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마직막으로 그는 학생들이 김영삼정권의 인기끌기 작전에 넘어가지 말것과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것을 거듭 당부했다. 92, 93후배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그, 6·3투쟁으로 외대학우를 특히 사랑한다던 그는 필승불패 전대협의 지지않는 '초록별'로 남을 것이다.

<이옥선 기자>

박홍근 전대협6기의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듣는다.

돌아보면 92년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라 생각된다. 92년을 맞으며 언론은 '학생운동 퇴조'리는 식의 보도를 많이 했다. 실지로 간부들 선에서도 약간의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다. 우리가 지난 시기 그토록 중요하게 보았던 격돌기, 권력재편기 등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은 듯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승리적으로 돌아서는 데 중요한 계

역사적 격변기에서 보여준 단결정신 이어져 한총련으로

기가 된 것이 4·26 국회의원 총선거였다. 총선개표 날 우리 간부들은 한달여의 총선투쟁의 노독도 있고 하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민자당 후보가 여기저기서 참패를 하고 야당의 당선이 확정이 되는 것을 보며 어리둥절해 하기도 했다. 우리는 선거결과에 대한 기쁨과 함께 국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막연한 희망으로 만 생각했던 12월 대선에 대하여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준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우기 5월말에 한양대학교에서 열렸던 전대협 출범식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출범식은 사상 최대인원인 8만명의 참여를 이루어 학우들과 간부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 주며 14대 대선에서 기필코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결의를 높인 장이었다.

8월 전대협은 범민족대회 개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 그러나 8월10일 새벽 4시 황영조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 전해져와 동시에 수천명의 백골단을 앞세우고 조명탄을 쏘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몇 날 밤을 새고 범민족대회 준비를 하던 터라 사수대와 간부들이 진압작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끝까지 중앙대 공대 옥상을 지키기는 했으나 안타깝게도 태재준의장님을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연행되고 말았다. 그후 우리는 장소를 서울대로 바꾸어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민족대회를 성사시켰다. 범민족대회 후 우리는 시급히 [illegible] 지도부에 권한대행을 세우고 전대협 지도부를 완성하여 대통령선거 준비를 시작하였다. 대선 방침을 결정하는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최초로 열린 전대협 임시총회에서 '범민주단일후보'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단일한 방침을 결정하고 대선투쟁을 준비하였다. 아쉬움은 많았지만 백만학도의 1만 간부들은 피어린 대선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과는 김영삼씨의 당선이었지만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원했고 [illegible]. 다만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기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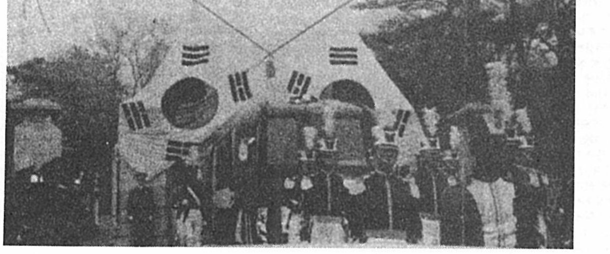
박홍근
<전대협 6기 의장 권한대행>

취재 당시 태재준 6기 전대협 의장은 안양교도소 징벌방에서 단식농성 중이어서 글을 실을 수 없습니다.

◇12·12의 진상과 그 평가

왜곡된 역사의 현장, 12·12쿠데타

조 현 연
<한국정치연구회 운영위원장>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는 '위법'이자 '군사쿠데타'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 필요

"12·12는 위법이 아니다." 지난 5월 8일 저녁 국회의사당, 황인성 총리의 폭탄발언이 터졌다. 폭탄의 굉음은 그동안 개혁정국 속에 가려져 있던 역사적 진실의 문제와 현 정권과 5·6공과의 관계 등 주요쟁점을 한순간에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면서 5월 정국을 '12·12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실언'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발언을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로인해 이를 공식적인 역사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의도했든 안했든 역사적 진실과 도덕적 양심에 대해 도전장을 낸 것이다.

80년 '12·12'의진상

1970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으로 인하여 독재자 1인 중심으로 편재되었던 권력구조에 일시적인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계엄령이 떨어지자, 힘의 중심은 군부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10·26직후 군부의 움직임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대립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군의 공식적인 주류의 입장에 서 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군부의 핵심간부들은 대체로 소위 '온건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비교적 정치색이 약하고', '유신헌법의 철폐→새로운 헌법의 제정→민간민선정부의 수립' 이라는 경로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뒤에 12·12를 주도하게 되는 군부내 강경파그룹(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박준병, 장세동, 권정달, 허화명, 허삼수, 최평옥, 이학봉, 비군인신분으로 검사 박철언 등)은 유신헌법의 조기철폐를 주장하는 군부 상층부의 주류에 대해 내심 반발하고 있었으며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제거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위기감은 온건파인 이건영, 장태완, 정병주의 핵심보직에의 임명, 전두환 좌천설 등으로 한층 심화되며, 쿠데타의 분위기는 무르익게 된다.

결국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강경파 그룹은 12·13개각 하루 전이자, 장군진급심사 결과 발표일인 12월 12일을 거사일로 잡아 기습적인 쿠데타를 감행하게 된다. 김재규사건의 공범혐의로 정승화를 체포하고 정승화를 추종하는 군상급 장군층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쿠데타기도는 양파 사이의 무력대결의 양상으로 발전, 유혈을 동반한 강경파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후 권력의 실세로 강경파가 부상함에 따라 '신헌법의 재정과 민간민선정부의 수립' 이라는 정치일정에 암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로써 유신체제의 조속한 철폐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민중과 이를 부정하고 새로이 부상한 신군부세력 사이의 정면충돌의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은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2·12쿠데타는 그 몇달 뒤에 빚어진 '광주대학살'의 참극을 잉태한 모태였으며, 5공과 6공의 뿌리로서 그 이후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씌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12·12의 성격-'위법'이자 '쿠데타'

지난 79년의 12·12쿠데타가 '위법'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논쟁거리는 아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 일간지와 잡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증언'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정치군인들이 사전모의하여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을 총으로 위협해 강제연행한 전말을 상세히 전해준다.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후승인을 뒤늦게라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이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더우기 12·12가 "수사목적으로 정승화 참모청장을 강제연행하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라고 했던 쿠데타 주역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한 예로, 신군부의 정권찬탈쿠데타 계획은 10·26 직후인 11월 초순에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도 90년 3당합당 이전까지 '12·12는 불법 쿠데타'로 규정해왔다. 87년 13대 대선 직선 그는"…노태우 민정당 총제는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군인으로서 12·12사태를 일으켜서 일선에 있는 군인을 빼와 가지고 쿠데타를 해 정권을 잡았다." 또는 "대통령의 허가도 없이 자기들 직속 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을 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연행하고 물고문까지 자행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방을 지키라고 국민에 내준 병력을, 지키라는 전방은 안 지키고 서울로 빼돌린 노태우 육군소장의 행위는 분명한 군사반란이며, 반안보적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물며 '쿠데타의 대선배'라 할 수 있는 김종필씨조차도 "12·12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잡기 위한 군 내부의 반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 13일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은 '12·12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12·12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과 관련해서는 "12·12사태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내리게 될 것"이라 말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청화대의 뜻과 관계없이 이번 성명으로 정권 스스로 12·12의 합법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불가피해졌다.

12·12쿠데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청산이 그 이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위한 전제임은 당연하다. 여기서의 '청산'의 의미는 단순히 역사적 재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통한 것임은 물론이다. 12·12쿠데타는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든가, "지난 일은 다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식의 주장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을 비롯한 12·12사태 쿠데타의 주역들이 사직당국에 고발되고 있는 현상이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볼 경우 12·12 주역들을 둘러싸고 거론되는 법률은 형법상의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또는 군형법상의 반란죄나 집단항명죄이다. 이중 내란죄나 반란죄는 법정최고형이 사형이어서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12·12사태 당시 수경사령관으로 '반란군'을 막으려다 실패하고 강제 예편됐던 장태완씨는 "12·12사태는 실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지극히 단순한 쿠데타사건"이라며, "12·12사태는 군형법 94개 조항중 69개 조항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쿠데타"라며 그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그는 또 "12·12사태는 군형법에서뿐만 아니라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91조의 국헌문란죄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란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에도 적용되는 중대범죄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잘못 흘러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진정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만이 능사는 결코 아니다. 더우기 쿠데타 주역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면죄부를 떼어줄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걸맞는 처리만이 있을 뿐이며, 국가적인 주요사안에 대해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황 총리에 대한 준엄한 문책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외대논단

이 책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통한 학원자주화의 길

외대인 사이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단어 외대발전운동. 이제 외대발전의 물줄기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이기에 체계적인 사상이론 정립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 학원에는 어떤 모순이 존재하기에 각 대학 학생들은 비슷한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해마다 투쟁하는 것일까.

이 책은 4부 '학원자주화운동(이하 학자)의 당면과제와 대안'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못다니는 학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다루면서 숭미사대주의 교육내용이 커리큘럼 전반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 돈을 낸만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또한 학원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악법이 존재하고, 문제를 해결할 일주체인 학생들의 참여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옛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육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너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몰아 붙일 수만은 없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학원의 모순을 앉아서 기다린다고 재단이나 교육부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득권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투쟁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싸움하는 것이 학자는 아니다. 따라서 이책 1부 '학원자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학자의 의미, 투쟁의 동력과 극복해야할 대상은 누구인가, 학자의 4대 특징 등에 대해 원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원자주화운동론을 포괄적으로 정리했다.

투쟁의 기본동력을 학생, 교수, 직원으로 보조동력을 동문과 학부모, 교수및 직원가족으로 상정한다. 또한 남한사회 모순의 근원인 미국을 극복해야될 주공격대상으로 삼는다. 미국이 아직도 한국의 제반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교육정책 역시 국방정책 등 다른 분야의 국가정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에 학자투 때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항상 떠오르지는 않지만 주공격대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과 교육행정관료, 재단 등도 역시 극복해야될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결국 학자란 이같은 모순을 인지하면서 투쟁의 동력과 극복대상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 모순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 자신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제2부 '학원자주화운동과 주체강화' 제3부 '학원자주화운동 방법론'에서는 실천속에서 검증된 전략과 전술이 정리되어있다. 세종대, 조선대 등의 투쟁을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투쟁의 형태에서부터 시작해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까지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투쟁속에서 대중과 간부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대중들이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부들로부터 주체혁신을 내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학발전 투쟁은 결코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학생들의 지주적인 요구를 모아 진행하는 투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간부들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학원자주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통한 학원자주화 달성'이라는 역사적 승리를 안아올 수 있을 것이다.

<김남중 기자>

소금상자

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3인이내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맡은 사건을 책임지고 조사하는 제도로 일반화된 것은 아니며 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형성될 때 발효되고 있다. 이제도는 지난 87년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때 특별검사로 변호사 중에 한명을 임명해 진상을 조사한 바 있다.

광주 5·18 민중항쟁 14돌을 기점으로 광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어 있고 이중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 실시가 주장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판사, 변호사, 검사 중 3인이고 권한으로는 탄핵 및 내우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시 파면, 해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체포·구금되지 아니하며, 형사상의 소추를 안 받는 특권을 가진다. 또한 필요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학술단신

'남북한 정상회담의 전망과 경제협력의 과제'

5월21일(금) 본교 공공정책연구소 주최로 '남북한 정상회담의 전망과 경제협력의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이장희교수는 동서독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남북정상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민족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미·소·일·중 4개국이 끼어들어 방해할 명분이 없어진다"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밝혔다. 그리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오히려 동서데탕트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북한핵에 대한 UN제재가 남북당사자 정상간의 직접 협상을 가능케 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며 전망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상과 과제를 설명한 남궁영씨(민족통일연구소 연구원)는 "단기적으로는 남북한간 직접교역의 본격적인 확대나 남한이 일방적으로 돕는 형태일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잃은 노동집약적 산업들을 북한에 이전함으로써 상호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교류의 기본적 요건으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조성 단계로 정치성의 배제와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등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협정의 마련을 들었다.

'우리시대의 정신'
'여성의 정치참여'

오는 25일(화), 26일(수) 오후4시에 대학원건물 6418호실에서는 '우리시대의 정신',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대학원 학술강좌가 열린다.

25일에는 '우리시대의 정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라딤 팔로스교수(체코 찰스대학교 총장)가 기념강연을 연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탈이념화, 탈냉전화현상과 더불어 소련을 위시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과 변혁을 경험하는 오늘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정신적 지주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학생들과 얘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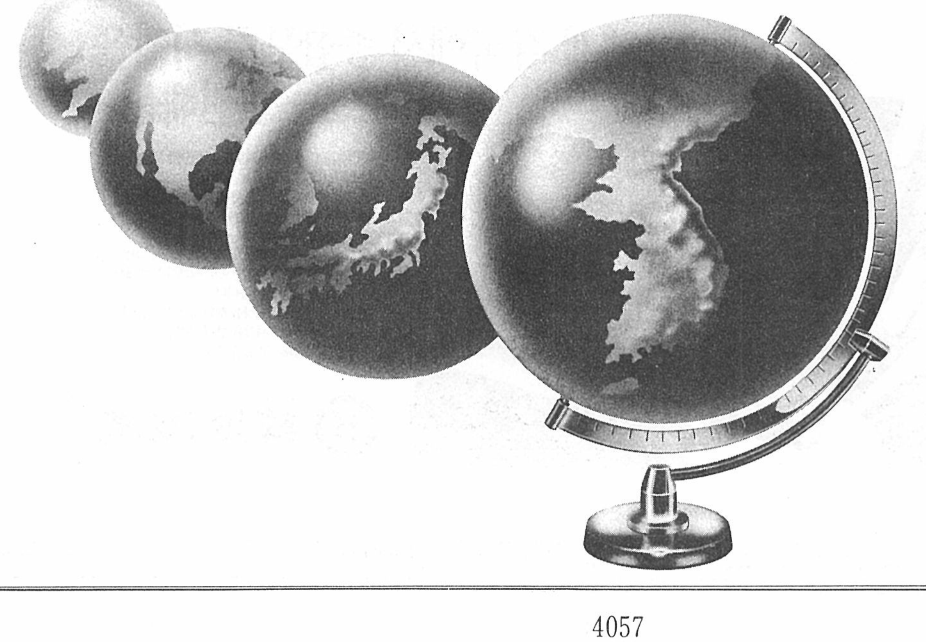
26일에는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손봉숙선생(한국 여성 정치연구소 소장)이 나와 강연을 가지게 된다.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는 그 국가 여성의 현실적인 지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최근 Y·S정권이후 여성의 정치 참여가 과거시절 보다는 늘어나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아직도 여성이 천대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자 통로는 여성의 정치참여라고 전제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방안에 대해 여성문제 권위자인 손봉숙 선생을 통해 알아보게 된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5
제2창업5주년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 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 —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기술의 힘으로 세계와 겨루는
SAMSUNG
삼성전자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반미의 날(5월22일)을 계기로 본 반미투쟁사

미군화발에도 승리해온 '자주역사'의 궤적

미제국주의…한국의 군사, 경제 등에 깊숙히 개입

광주민중항쟁 이후 반미투쟁의 파고 높아져

'양키고홈'과 '반미출정가'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 조국 몸짓을"

93년 5월 윤금이를 죽인 미군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문민정부는 개혁의 칼을 여기저기 휘두르고 있다. 모든것이 순조로운 듯하고 미국은 한반도로부터 저만치 물러서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양키고홈'이 외쳐지고 '반미출정가'가 집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2일(토) 단국대에서는 오랜만에 반미구호가 울려 퍼졌다. '광주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한반도 긴장 고조 주범 미국반대를 위한 한총련 결의대회'가 열린 것이다.

"성스러운 반미 자주화 투쟁으로 기필코 5월 민족의 한을 풀자."

"너희가 가야 우리가 산다. 한반도 악의 근원 미국놈들 몰아내자"

이런 구호들은 미국과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이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5월 22일은 반미의 날이다. 13년전 이날은 존 위컴 주한유엔군 및 한미연합 사령관이 자신의 작전 지휘권아래 있는 한국군을 광주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20사단을 광주에 파견한 것을 승인한 날이며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발포를 승인한 날이다. 또한 오끼나와에 있는 경보기와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긴급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아마 우리를 도우러 오는가보다. 우리가 이렇게 학살당한 것을 안다면 전두환 일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하는 말을 주고 받으며 기대를 걸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체는 5월이 지나자 마자 곧 밝혀졌으며 전두환 정권을 지지한다는 발언은 광주시민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총구는 바로 광주시민을 향해 겨눠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해방이후 수십년동안 영원히 우방으로만 알려졌던 미국의 정체가 광주에서 완전히 밝혀지기 훨씬 이전에도 반미투쟁은 계속됐었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에 정식으로 조인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지역방위에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안간힘을 쓰던 미국의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된다.

한·일협정은 한국에 지원하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일본에게 전가시키고, 대사회주의 봉쇄정책으로 변화시켜 아시아에서 일본을 주축으로 한 집단 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한편 일본의 값싼 노동력과 원료시장, 상품판매 시장을 찾는 요구와도 맞아 떨어졌다. 한반도 전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조인되었고 이로써 5·16정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게 되었다.

드디어 분노한 한반도 민중은 궐기한다. 절정이었던 64년 6월 3일 서울대에서는 단식농성 인원이 3백여명으로 6명이 실신 졸도하는 등 극한 사태로 치닫고 있었다. '한·일 회담 반대' '굴욕외교반대' '학원자유수호'등의 구호와 함께 투쟁의 양상은 불을 뿜는 듯한 열기에 휩싸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는 비상조치 선포에 이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정권유지에 혈안이 된 박정희정권은 지신들의 과오를 사죄하기는 커녕 5·16의 총칼을 다시 한번 국민앞에 들이댔던 것이다.

6·3투쟁은 65년 5월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반미투쟁으로 번져간다. 민중들은 박정희의 배후에서 한·일회담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아주 미약하나마 반미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더이상 관여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우정은 좋지만 간섭은 싫다" "양키여 침묵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박정권의 이해의 공통분모가 민중의 항거를 탄압하고 관철되었다. 그후 유신의 어둠에서도 반미의 깃발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실체 벗긴 광주민중항쟁

미국은 박정권에 이어 '친미'와 '반공'의 슬로건을 목청높게 외쳐대는 전두환정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선택을 받은 전두환정권은 인사권리로 나아갔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법률들을 뜯어 고치고 '불순한'사람은 '정화'를 시키거나 '순화교육'을 하면서.

그러나 80년 5월.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도 끝내 좌절되었던 광주민중항쟁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어냈다. 그리하여 새로운 한·미관계의 밀월여행의 문이 활짝 열린 80년대에 접어들자 적지않은 오류를 범하면서도 반미자주화 투쟁의 파고가 드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투쟁→레이건 방한 반대투쟁→IMF·IBRD총회개최 반대투쟁→수입개방 반대투쟁→미문화원 점거농성투쟁→반전반핵 반미투쟁→5·3 인천투쟁→6월 민주화 대투쟁으로 줄기차게 펴져 나가는 반미자주화 투쟁과 사회민주화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식이 심화·발전되자 전무하다시피 한 민족대단결의식이 확산되면서 조국통일촉진투쟁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4월 28일 두명의 젊은 대학생이 신림동 사거리에서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채 '반전반핵 양키고홈", "미제의 용병교육 결사반대"를 외치며 쓰러졌다. 이들의 목숨을 건 반전 반핵반미 분신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민중들에게 반미를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했을뿐 아니라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1953년 이승만에 의해 구두로 이양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국군을 자신의 군사기지화해 왔다. 작전지휘권의 미군 장악외에도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밀도로 배치된 핵무기, 매년 실시되는 팀스피리트 훈련,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계속되는 미군주둔등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만도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미국의 군사잡지 군사평론에서 "한국군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미국의 고용군대이며, 또 한국군은 아시아 진출의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한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나열한 정치·군사적 문제들 외에도 경제·문화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전쟁 후 원조의 형태를 띄던 미국과의 관계는 50년대말 원조감축을 계기로 자본유통의 위기, 종속된 자본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경제는 60년대 초 군사정권을 중심으로 대기업과의 정경유착에 빠져 버린다. 매판 자본가와 미국, 이중의 굴레를 쓰게된 한국민중은 덩치만 커진 경제구조에서 점점 더 소외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거품경제의 허상이 드러나고 미국의 원조도 모두 계략이었음이 알려졌다. 또 생활문화와 사고방식조차도 점차 서구화되고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보여 우리것을 지키려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미국은 그래도 영원한 혈맹인가

미국은 그래도 영원한 혈맹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남한 단독 올림픽, 유엔 동시가입 등 미국에 의해 진행되어왔던 '두개의 한국정책'은 95년을 통일의 해로 상정했던 청년 학생들을 우롱했다. 아직도 반미투쟁은 유효하다.

쌀수입 개방압력이 시시때때로 들어오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남한의 크고 작은 일에 간섭하고 있다. 군사정권의 낡은 유물인 한미행정협정 또한 그대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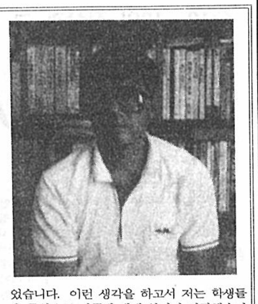
한반도가 완전히 혼자설 수 있는 날은 요원한 것일까? 미군의 군화발에 짓밟혔던 누나 동생, 미군의 용병이 되어 숨져간 형제들, 그들에게 빼앗긴 것도 모르고 막연히 분노하는 어머니·아버지… 더이상 그들의 슬픔을 묻어 두어서는 안된다.

반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는 안된다. 하나씩 하나씩 묶인 사슬을 끊고 '자주'의 길을 걸어 나갈때 민중세상은 도래할 것이다.

<이옥선 기자>

지난해 8월 통일선봉대 학생들은 '미국반대와 조국통일'을 외치며 선도적인 반미투쟁을 수행했다.

반미투쟁의 선구자 김현장씨를 만나



김현장, 요즈음 대학생들에게 그 이름은 현대사책 속에서만 두어번 본 기억말고는 낯설은 이름일 것이다. 아마 그것은 그가 1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징역살이를 하다 93년 3·6사면 때에야 비로소 우리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리라.

80년 5월 광주의 한 복판에서 그는 '전두환 산율작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5만부를 제작하여 최초로 광주의 진상을 전국에 폭로하고 2년동안의 수배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82년 3월 18일, 오늘날 반미투쟁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88년 12월 특별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와 이철규열사 진상규명대책위 집행위원장, 전민련 국제협력국장으로 활동하다 89년 8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7년형을 선고받는다. 7년형의 죄는 미·일·유럽의 교포단체에 팩시밀리로 범민족대회 행사안내를 보냈다는 것인데 소위 '국가기밀 누설죄'였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불같은 사나이, 조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시대의 무거운 임무를 온몸으로 부여안았던 그를 이렇게 간단한 약력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84년 12월, 그가 옥중에 있을때 혼인신고만으로 결혼한 평생동지 김영애씨와 때아닌 신혼기분을 맛보면서 보고팠던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적응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김현장씨를 원주에서 만나보았다.

△부산미문화원방화(이하 부미방) 당시의 반미투쟁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먼저 이땅에서의 반미운동에 대해 말해보자면 '반미'는 일찌기 뛰어넘어야 할 과제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미방의 불길을 당긴것은 주한미대사 워커의 망발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체제인사들과 학생들을 '버릇없는 애새끼'라고 했죠. 80년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이 '한국국민들은 들쥐새끼와 같아서 대통령이 누가 되던 상관없고 민주주의도 할 수 없다'라는 망언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말입니다. 응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주학살의 조정자, 우리를 향해 들쥐새끼니 버릇없는 애새끼니 하는 그들을 응징해야만한다고.

지금도 그때도 부미방의 방법이 좋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달리 택할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방법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우리들의 동지는 모두가 인정을 했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현시기 반미운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82년 부미방때는 '미제는 물러가라'는 그 구호 하나만으로도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미의 구호나 성조기를 태우는 것이 문제시 되지않은 만큼 반미 운동은 확산되어 있습니다. 반미운동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우리를 향해 들쥐새끼라는 그들을 응징해야만 했습니다."

습니다. 그러나 분단되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남한사회에서 반미를 외치는 것은 곧 공산주의를 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통일마저 마음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식인 계층으로만 반미의 당위성이 인식되고 있었죠.

△부미방의 계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80년 5월 광주항쟁의 주모자로 몰려 수배생활을 하면서 광주항쟁이 왜 실패하였나를 곰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무기가 부족하고 광주가 고립돼 있었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문제고 본질은 미국이 민주정부의 수립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박정희정권과 같은 군부독재가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었죠.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이 작전권과 군부대 이동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미 방위협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쏘았던 M·16총과 탄알이 바로 그 미제국주의의…….

그리고 또 하나의 실패요인을 든다면 국민의식의 평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하고 더 조직적으로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사람, 미국것은 무조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외교,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임을 명확히 해야돼요. 지금 미국은 예전에 한국대통령 제조창이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우리는 사안별로 —예를들면 쌀수입개방반대,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핵반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직적인 선전과 반미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현지에서도 우리 교포들을 비롯해 미국의 한국지배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미지식인들까지도 함께 우리들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제연대의 풍토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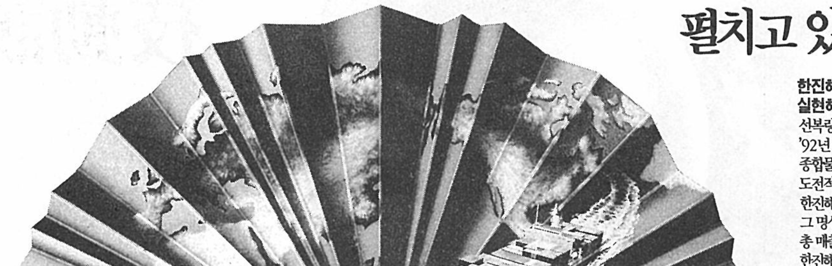
가끔 목소리만 크고, 감정적으로 반미를 외치는 분위기가 비쳐집니다. 반미에 대한 과학적 이론화, 조직화, 국제연대화가 되어야 해요.

△앞으로도 계속 운동을 하실건가요.

물론이죠, 운동가는 죽어서 이름으로 운동을 해야하는데 살아서 왜 안한단 말입니까.

우선 안팎으로 생활이 정리되면 다시 내가 있어야할 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정지혜 기자>



세계 각국에서 종합물류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진해운—

한진해운이 세계를 무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 갑니다.
선복량 세계 10대 선사, 수송량 세계 5대 선사로서
'92년 총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한 세계적인
종합물류회사 한진해운 —
도전적인 투지와 야심에 찬 포부가 빛나는 젊음처럼
한진해운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세계의 무대에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 중 8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 들이는
한진해운은 오늘도 세계를 향해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친근한 이름 韓進海運

■한진해운 해외지점망
■미주지역본부(롱비취)/롱비취/샌프란시스코/시애틀/휴스턴/시카고/뉴욕/아틀란타/달라스/클리블랜드/세인트루이스/멤피스/보스턴/포틀랜드/사바나/윌밍턴/멕시코시티/뱅쿠버/몬트리얼/토론토/파나마 ■구주지역본부(함부르크)/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뮌헨/듀셀돌프/런던/펠릭스토워/맨체스터/버밍햄/로테르담/파리/르하브르/안트워프/브레멘/아르후스/코펜하겐/고텐부르그/핀란드/노르웨이/더블린/빌비오/제노아/리스본/바젤/수에즈 ■일본지역본부(도오코오)/도오코오/오사카/요꼬하마/나고야/시미즈 ●대만지점/대북/기룽/고웅/대중 ●중국지점/상해/청도/북경/천진/대련/광동/ ●홍콩지점/홍콩/마카오/마닐라 ■서남아지역본부(싱가폴)/싱가폴/방콕/자카르타/포트캘랑/다카/치타공/봄베이/콜롬보/카라치/베트남 ●오세아니아지점/시드니/멜버른/●중동지점/두바이/담만/쿠웨이트/호메이다/제다/아카바●지중해지점/바르셀로나/마르세이유/제노아●아프리카지점/카사블랑카/다카르/케이프타운●중남미지점/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

□외대인에게 주제별로 보는 볼만한 비디오

인종문제 /똑바로 살아라(스파이크리 감독)

흑인문제는 흑인이 풀어야 한다.

흑인은 까불고 촐싹거린다.

언젠가, 소문으로만 들던 흑인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의 대표적인 '똑바로 살아라'가 즐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비디오가게에 급히 달려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비디오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아/그 깜둥들만 잔뜩 나오는 영화 말이죠. 에이, 깜둥이들만 나오는 걸 누가 봅니까?" 흰둥이만 잔뜩 나오는 영화는 봐도 깜둥이만 나오는 영화는 안 본다니…

거리를 몰려다니는 부랑아, 착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멍청한 인간, 수다스럽고 요란스런 인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인간…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수많은 영화속에 그려진 흑인의 모습 전부이다. 대개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가 백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나 TV 물에 등장하는 이런식의 인물인 점을 고려할 때 (간혹 길거리에서 흑인을 볼 순 있지만 단지 보고 지나치는 것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디오가게 주인만 탓할 수는 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물론 '48시간', '비버리힐즈 캅'등에서 주연을 맡은 '잘나가는 배우'에디 머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맡은 배역 역시 앞서의 전형들과 크게 다를게 없다. 단지 쓸데없이 까불고 촐싹거리는 광대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전혀 새로울게 없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러한 광대의 역할은 피지배계급의 역할이었다. 가령 제법 그럴싸해 보이는 비극의 주인공은 항상 귀족이었고, 어딘가 어리석고 무언가 빠진 듯한 희극의 주인공은 항상 하층민이었지 않은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자면, 감히 먹고 살기도 바쁜 하층민 주제에 '삶을 고뇌하고, 복수에 불타는, 불의에 분노하는'따위의 멋진 역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흑인의 관점에서 다른 흑인 영화, 똑바로 살아라.

짧은 지면에 지나치게 긴 서두가 됐으니 이젠 본론으로 서둘로 들어가자. 이번에 소개하는 '똑바로 살아라'는 다른 인종문제를 다룬 영화와는 분명한 선을 긋는 영화이다. 우선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것이 이영화를 연출, 제작한 스파이크 리라는 인물(영화의 주인공 역인 부키가 바로 스파이크 리이다.)이다. 소위 '새롭게 대두하는 블랙 파워'의 선두 주자인 스파이크 리는 그의 일련의 영화를 통해 흑인들의 문제를 흑인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의 최신작 '말콤 X'는 이러한 작업의 결정판이라 보여진다. (3시간 20분에 이르는 이 영화는 골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며, 서울에서의 상영은 노 컷팅 (no cutting) 이어야 한다는 그의 계약조건에 의해 원판 그대로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마저 제공하고 있다. 두 말할 것없이 봐서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영화이다.)

그는 '똑바로 살아라' 에서 흑백갈등의 문제 뿐만아니라, 흑인간의 문제까지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굳이 미화시키려 하지도 않으며, 문제를 과장하지도 않는다. 그가 이영화를 통해 다루고 있는 것은 인종간의 불평등한 구조, 사회적인 관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똑바로 살아라'는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흑인을 설정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점에서 여타 다른 인종문제를 다룬 영화와는 다르다. 가령 비교적 괜찮은 작품으로 보여지는 '미시시피 버닝'역시 해결의 주체는 백인이며, FBI일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분석 해결의 주체는 흑인이어야 한다. 백인이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흑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문제의 해결이 FBI를 통해 이루어지는건 더더욱 아니다. FBI는 단지 미시시피에서 발생한 하나의 살인사건을 해결 (?) 했을뿐인 것이다.

스파이크 리가 내놓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권력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다. 영화의 시작은 바로 퍼블릭 에너미(Public Enemy)의 화이트 더 파워(Fight The Power)라는 노래와 함께 시작한다.

그리고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구타 살해 사건과 흑인들의 시위 뿐아니라 LA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인 한국인과 흑인간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지 2년 후, 마치 예언과도 같이 '로드니 킹' 사건이 발생하고 거대한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물론 영화와는 다르게 (?) 한국인들이 그 분노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가 됐지만…

오강환<서울무비>

□문화논평－대학내 모자문화

켄퍼스 안이나 거리를 거닐다보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가 있다. 단순히 햇빛을 피하려는 목적보다는 모자는 이제 하나의 패션이다.

모자의 종류와 용도도 참으로 다양하다. 쉬운 예로 군인들이 쓰는 군모와 철모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멋을 찾는다는건 좀 우스운 이야기일 것이다.

모자는 우선 유럽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신사들이 자신들의 품위와 멋을 위해 항상 모자를 착용하고 다녔던 것을 우리는 책이나 영화를 통해 많이 보아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어린 이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니곤 했는데 그 당시 프로야구 만큼이나 모자의 유행도 또한 대단했었다.

얼마전, 서태지와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들의 무대의상중의 하나인 모자가 팬들에게 유행거리 (?) 를 제공하기도 했다.

모자라는 것을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나 쓰는 것쯤으로 생각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남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모자를 골라 그들만의 멋을 찾고 있다.

최근 대학내에서 보여지는 신선한 변화가 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을 선전한다거나 구성원들의 단합을 위해 줄곧 사용해오던 것이 티셔츠였다. 그러나 이제는 켄퍼스 안에서 지기 학과나 단대의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 본교 법대, 사범대, 동구어대의 경우 올해 지기 단대를 상징하는 모자를 나누어주어 소속감을 느낄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이러한 단결의 토대인 모자에 '학원자주'의 열망이 담겨 있다면 그 의미가 더욱 새로워 보일 것이다.

모자쓴 모습이 때론 버릇없이 비춰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대부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특히 남녀할것 없이 애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 반지나 목걸이처럼 사치함을 풍길수 있는 악세사리대신 간편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 모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부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모자를 찾는 외대인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멋있고, 세련되 디자인의 모자보다는 투박하지만 공동체모두가 소속감을 느낄수 있는 모자를 맞춰 봄이 어떨까. 그야말로 멋과 소속감, 일거양득일 것이다.

하지만 모자가 이렇듯 좋은면만 있는것은 아니다. 영문글자가 세겨진 모자는 차치하고서리도 강의실에서까지 이를쓰고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간혹 눈에 띈다. 멋도 좋지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새로이 신세대 문화의 하나로 인식될 모자문화의 올바른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재우기자〉

□공연이야기－참소리, 참언론, 참세상

대학신문의 현주소 노래속에 담아

다양한 관객층 확보 못한점 아쉬워

'대중신문 창출'의 기치를 내걸고 올해로 12돌을 맞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과 대학신문86기자동우회가 공동 주최한 "참소리, 참언론, 참세상" 문화공연중 서울공연이 지난 23일(일) 오후 4시와 7시, 24일(월) 3시, 6시 양일간에 걸쳐 홍익대 강당에서 열렸다.

노래라는 형식을 빌어 대학신문탄압의 실상을 폭로하고 대학신문 지주회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광주와 부산을 순회하며 4일간 순회공연을 실시했다.

전대기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이번 공연이 300여명의 서울지역 언론 일꾼들이 관람을 하리와 이들이 대학신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수 있게 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다.

그 동안 서로 정해진 틀내에서 실무적이고 공적인 관계로서만 만나던 것과는 달리 공연장에서의 만남인지라 기자들 모두가 부담없고 가벼운 마음이었다.

제1부에서는 대학신문 편집자율권 쟁취투쟁과정에서 겪은 모진 탄압과 고민하는 대학신문 기자들의 모습을 그려냈고 '열사가 전사에게'에서는 이철규 언론 열사를 비롯해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을6수 많은 언론열사들의 한을 끝부분에서 기타소리로 표현했다.

2부에서는 민중 학그룹 '천지인'과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의 ,여가수 모희라씨등 찬조출연자와 전국 해직언론인 원상호복 쟁취협의회에서 제작한 슬라이드 '언론민주화 투쟁20년'이 선보여졌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지치고 힘든 신문사 생활이지만 꿋꿋하게 일어서는 기자들의 희망찬 모습을 담아 내었다.

시낭송을 비롯해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양했던 반면 대체로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또 무대와 음향시설이 좋지 않은 관계로 공연중에 음떨림 현상이 많아 관객들이 감상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가 아닌 노래패 '소리생'의 연주는 다소 미숙하고 서툴렀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대학신문의 탄압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원래의 기획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멀게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단지 하나의 '공연'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점이 남았다. 또, 대학신문기자이외에 다양한 관객을 모으지 못해 대학신문의 탄압을 외부에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모처럼 뜻있는 자리를 마련했던 이번 전대기련 문화공연이 앞으로 지주언론의 참일꾼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대학신문 기자들에게 참소리, 참언론의 진정한 의미와 주인의식을 심어줄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되길 바라며 미지막 순서인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노래를 힘있게 불렀다.

<이재우 기자>

□영화이야기

일본영화제 개최, 선풍적 인기 끌어

지난 17일(월) 부터 20일(목)까지 대학원 소강당에서는 일본어과 주최로 '일본영화제'가 열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들이 일본을 대할때 감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일본영화제는 일본인들의 생각과 생활의 단면이 담겨있는 영화를 봄으로써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일본영화가 수입되지 않아 불기회가 없어서인지 영화제기간내내 관람객들의 발이 끊이지 않았다. 약 천여명이 관람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특히 구로지와 아끼라 감독의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 '라쇼몽'과 우리나라에서 방영된적이 있는 '미래소년 코난'의 작가가 그린 만화영화 '토토로'가 큰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영화시작시간이 매번 10분, 20분씩 지연되었고, 우리말 자막을 좀더 보기 편한 위치에 두지 않아 불편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늘 멀게만 느껴지는 일본.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학생들은 일본인들의 사상을 나아가 문화침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그 노력의 산물인 영화속에서 느끼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수 있었을 것이다.

<문화부>

우리말 쓰임새

(236) － '시구'인가 '싯귀'인가

詩句라는 단어는 흔히{싯구}혹은 {싯귀}등으로 발음하여 표기에서도 혼란을 빚어 왔다. 그러므로 이번 표준어 규정에서는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들은 모두 '구'로 읽고 쓰도록 통일하였다. '귀절'이 아니라 '구절'로, '댓귀'가 아니라 '대구'로 적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어두음절에서는 이 句를 {구}로 발음하지만, 비어두음절에서는 시구(시귀), 대구{대 : 꾸}, 성구(성꾸)처럼 {꾸}로 발음하는 일이많다.

<서울캠퍼스 동이리 우리말연구회>

□문화초점－용인캠퍼스 장승제

용인켐퍼스가 오늘 25일(화)치를 예정인 '왕산발전대동장승제'(이하 장승제)로 인해 주최측과 기독교제일 학생들 사이에 커다란 마찰을 빚고 있다.

장승은 예로부터 마을입구에 세워져 마을의 수문장역할을 하며 그 마을 사람들의 친근한 벗이 되어왔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의해 장승은 하나하나 사라져갔다. 본교 장승제는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학생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내고, 한판 대동을 통해 지금까지의 개인, 소비적인 문화가 아닌 건강한 문화를 건설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독학생회(SCA)를 제외한 기독동아리 학생들은 대지보를 통해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과, 천오백여 기독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비판했다. 또 장승이 단순한 '나무토막'이 아니라, 장승에 소원을 비는 등의 행위는 장승을 '우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논리다. 이는 '나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성경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행위인것이다. 이로 인해 연일 반박 대자보논쟁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최측은 장승제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장승은 우리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며,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염원을 모을 수 있는 장승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독동아리학생들은 장승제는 용납할수 있지만, 기독학생들의 눈발을 찌푸리게 하는 '장승'은 행사후에 뽑아주길 바라며, 매년 장승제때마다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내오고 있다. 한편 기독학생회(SCA) 소속 학생들은 대지보를 통해 '장승'은 '미신'으로 볼수 없고 우리민족문화의 유산일뿐이라며 장승제를 인정했다. 카톨릭학생회의 경우도 현대사회에서 장승은 숭배물로 볼수 없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풍습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또 성불회의 한 학생은 기독동아리학생들의 반대에 대해 연세대나 동국대처럼 특정종교가 없는 본교에서 학생들이 고유한 영역을 개척해 활동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장승제를 둘러싼 학생들간의 마찰을 종교상의 문제로 인해 해결의 가능성이 희미하다. 특히 장승제후에 장승을 계속 세워둘 경우,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연세대처럼 장승을 세워놓으면 기독학생들이 뽑아버리고, 세우면 뽑고 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서울캠퍼스도 작년까지 그러한 사태들이 일어났었고 현재 장승이 잘려진채 방치되 있는 상태다. 용인캠퍼스도 몇해전까지만해도 있다가 없어져 이번에 부활을 맞게 된 것이다.

장승제를 통해 왕산인의 대동단결을 모색해보겠다고 했으나 기독교계열 학생들과의 갈등속에서는 대동단결보다는 분열이 앞설수밖에 없다.

장승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학원자주의 토대를 세운다는 것이 목표지만, 이는 그동안의 용인캠퍼스의 최박한 학원자주와 문화풍토도 큰 영향을 미쳤을것이다.

기독계열학생들도 엄연한 외대인이다. 장승을 세우는 문제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결정을 해야할것이지, 일단 '세워놓고, 반박하면서 뽑고'하는 식의 다툼은 없어야 할것이다. 또 장승이 있다고 해서 학원자주화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학생하나하나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수렴, 집행하는 학생회가 밀바탕이 되고 여기에 교수, 직원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를 이번 장승제를 통한 논쟁을 보면서 식상(?)하게나마 반복해 본다.

<이진영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회 하계 어학연수
(The 5th Summer Language School)

일 시 : 1993. 7.5(월)-8, 6(금)
연수대상 : 전국 대학생
모집인원 : 1차 220명(선착순).
원서접수기간 : 5. 17-5. 2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외대 용인캠 어문관 202호 대·생·협 사무실
타교생은 전화(0330-30-4153) 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연수의 특징.
1. 하루 7시간의 실용 영어 중심의 집중 프로그램.
2. 국제인의 밤, 세미나, 한여름 밤의 음악회, 체육대회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
3. 기숙사에서 모든 강사진과 함께 생활.

◉프로그램 내용

시간	담당
9시30분-11시20분	듣기 동시통역사
11시30분-시20분	말하기 외국인 강사
2시30-4시	COMPOSTION, SCREEN ENGLISH, NOVEL ENGLISH POEM, READER'S DIGEST, TIME
4시-5시30분	POP MUSIC, READER'S DIGEST, NOVES SCREEN ENGLISH, 영어 회화 보강

'93 제5회 연수 5월21일 현재문의 및 지원현황

외대, 서울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경상대, 서울산업대, 경희대, 세종대, 명지대, 동국대, 전주대, 경기대, 공주대, 경원대, 중앙대, 충남대, 한림대, 대구대, 전북대, 단국대, 한양대, 건국대, 목표대, 방통대, 인하대, 아주대, 한국해양대, 한신대, 인천대, 경남대, 충북대, 부산대, 국민대, 홍익대, 한양여전, 항공대, 한남대, 숭실대, 삼육대, 서강대, 효성여대

비영리 연수로써 실용어학의 전문적 학습과 보급을 위해 1989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4년 동안 괄목성대할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전국 수십개 대학에서 온 학우들과 知와 友를 쌓아갈 전국유일의 프로그램으로써 외대의 자랑인 이 훌륭한 연수를 민족과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이 연수의 준비를 위해 도와주시는 많은 고마운 분들과 많은 학우들의 따뜻한 성원 감사 드립니다. -연수국

찬양 경연대회

□일 시 : 5월27일(목) 17 : 00

□장 소 : 노천극장

□주 최 : 기독학생연합

□참가신청 : 5월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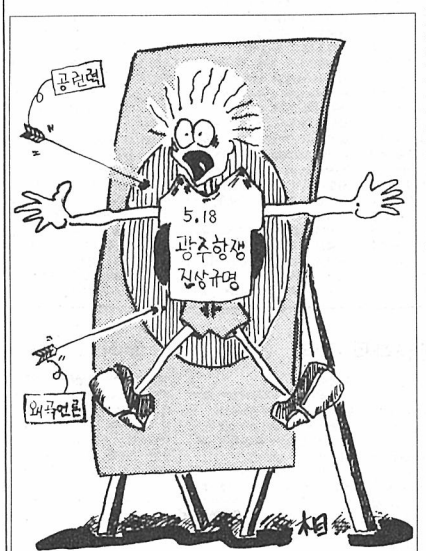
기독학생연합(961-4565)

□참가대상 : 대학생이면 누구나

◇'광주 담화문'에 대한 언론의 보도 양태

매체 비평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없이 용서와 화해만을 강조해 보도



80년 5월 당시 언론은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여 집권엔 신군부세력이 집권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 새로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5·18 광주항쟁을 '문민정부와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화운동이다'라고 규정하고 광주의 명예회복을 언급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신문분과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담화에 대하여 각 신문들이 13년전에 진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과거에 대한 아무런 자기반성이나 참회없이 또 다시 광주문제 해결을 운운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이번에 각 신문매체를 통해 게재된 내용을 기초로 비평하였다.

역사의식을 상실한 '화해와 용서'강조

김영삼대통령의 광주담화문에 대하여 각 신문들은 이구동성으로 '화해와 용서' '명예회복'을 말하고 있다. 각 신문들은 '보복과 처벌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뿐이며, 흘러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이제 용서하고 화합을 이루자' 또는 '정부의 대책을 광주시민들은 받아들여 13년의 아픔을 마무리짓고 대화합을 이루자'는 정부의 입장을 아무런 비판이나 객관적 시각없이 보도하고 또한 사설을 통하여 강조함으로써 5·18광주항쟁이 갖는 역사성과 현실성을 덮어버리고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결'이 아닌 '망각'으로 5·18을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광주의 명예회복'사설 5/14일자)에서 '一갈등과 분열을 재현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될것- 정치적 판단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고와 주장도 이에 적응하는 조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도 '5·18 그리고…'(5/14일자 사설)에서 '…국민이 이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화해와 용서의 자세가 필요…'라고 주장하여 화해와 용서로 광주문제를 해결하자고 일방적으로 담화문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나서고 있다. 이외에 경향신문은 '광주문제, 해결의 전기'(5/14일자 사설)에서 '…광주문제 해결의 관건은 이제 광주주민들과 관련단체들의 정부방안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용서와 화해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여 오히려 광주시민들에게 문제해결을 떠넘겨 진정한 해결이 아닌 '강요'에 의한 '화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일보 '김영삼정부의 광주해법'(5/14일자 사설)에서 '아울러 정부는 헌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상규명만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와 한겨레신문 '학살 진상 알아야 용서할 수 있다'(5/15일자 사설)에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광주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한 해결에 대하여는 각 신문들이 독자적인 입장이 없으며 지난 5월15일(토)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주장을 인용,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야간의 공방차원으로 취급하여 광주의 '진상규명'을 통한 진정한 과거청산과 화합보다는 김영삼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즉 권력을 추종하는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김영삼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있어서도 한국일보 '현실적 한계내 과거, 바로잡기'(5/14 해설), 동아일보 '진상규명이 남은 블씨', 조선일보 '잊지말되 용서를…'매듭시도, 넘어야 할 과거…미래지향적 해법 강조', 경향신문 '5·18-문민정부 연장선상에', 중앙일보 '진상규명보다 대화합에 초점' 등을 통하여 문민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닌 '화합'과 '용서'라는 입장에서 담화내용에 대하여 긍정으로 평가하여 광주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광주 해결 핵심외면'(5/14) 에서 '진상규명과…이른바 과거청산이다. 그러나 5,6공청산이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단 비켜간 것'이라고 하여 광주문제는 이땅에 5,6공의 군부잔재를 일소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작을 통한 본질 비켜가기

김영삼대통령의 광주담화문에 대하여 신문들은 여론조사 매체를 동원하거나 취재보도를 통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기술을 발휘하여 광주항쟁의 현재적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의 경우 대통연구소의 통계조사 발표를 전면에 게재하면서 80%의 응답자가 담화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어떤 계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신뢰도가 부족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일부반발 불구 계획대로'(5/15일자 해설) 에서 "정부로서도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문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그들(광주지역)에게 알려져, 이제는 그들도 이해하고 있다" 고 주장하여 광주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일보는 '진상규명이 남은 블씨로'(5/14일자 해설)에서 '5·18단체와 조율 안돼 실효 미지수'라고 하여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신문들은 사회면에서 '진상규명해야 상처치유…'(중앙 5/14일자), '문민대통령에 배신감, 분노'(한겨레 5/14일자)등 광주지역 운동단체 및 유력인사들과의 인터뷰기사나 취재기사를 담화문에 대한 광주지역의 반응과 여론동향을 보도하면서도 다른 지역의 여론과 반응은 무시하여 5·18을 광주지역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취급하여 그 현재적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땅의 뿌리깊은 지역감정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신문분과>
<글 : 정희종>
<정리 : 여론부>

우울한 5월을 보내며

명수당 明水堂

리얼탁 향기가 그득한 5월은 가히 계절의 여왕임이 분명하지만 금년 5월만큼은 우리 교수들에겐 그렇게 향그럽고 풍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금년 스승의 날에도 예전처럼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꽃과 선물로 사은의 정을 표해주었건만 그들의 감사의 정을 흠가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신학기이래 계속되는 학내사태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기 때문이다.

학기가 다 지난 마당에 봉급타령하는 것은 교수들 입장에 체면손상이 가는 일이 분명하지만 5월에도 봉급타령이 안된 채 지난해의 봉급을 그대로 받을 것 같다.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학생들이 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순순히 응해주었고 등록금 납부도 순조로왔던 까닭에 교직원의 봉급 책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런 기대는 깨어졌다. 학교당국은 정부 당국의 고통분담의 논리에 순응하면서 낮은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

봉급문제는 다른 대학도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외대교수들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5월에 우리 교수들을 특별히 우울하게 하는 것은 신학기부터 학생들이 제기한 '외대발전'의 문제가 타결을 못본채 표류하고 있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이다. 무엇이 발전이고 그 기준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또한 그것을 여기서 장황하고 현학적으로 설명할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 외대 구성원이 대체로 80년대 초 이래 학교의 상대적 위치가 계속 하강해왔다고 하는데 동감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왔다. 협소한 캠퍼스, 교수연구실의 부족과 조악하는 연구환경, 입시생들의 상대적 성적하락, 사회로부터 우리 외대졸업생에 대한 상대적 수요감소 등에서 우리 외대가족은 위기의식을 느껴온 것이다.

우리 교수들을 더 우울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학내사태의 해결에서 중심에 서있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오늘날 외대상황의 주된 책임이 제단의 잘못된 경영에 있다고 주장한다. 교수들이 오늘날 외대상황의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 유쾌한 일도 되지 못한다. 항상 학교 발전과 운영에 관한 문제들이 학생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학생과 학교, 학생과 제단과의 합의와 해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되어온 것은 우리 교수로서는 그리 명예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못되기 때문이다.

대화와 합의로 구성원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6월이기를 바란다.

정일용(무역학과 교수)

그동안 학내사태의 발전과 관련하여 학과장, 교수일동 이름의 성명서, 경고문등이 나가긴 하였지만 성명서나 경고문등이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됨직한지 의심스럽다. 많은 교수들은 그러한 성명서가 도리어 학생과 교수간의 불신의 벽을 더 높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청전에는 학생들이 제단 개편을 요구하는 팜플렛을 신문에 게재하고 재단 운영에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진정 외대발전의 문제를 우리 내부 구성원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 교수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외대 저발전'의 요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해결을 외부에 맡기고 그 책임의 소재를 들리싸고 소모전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해결은 대화와 합의로서만 가능하고 대화와 합의는 구성원 간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서 행정의 민주적 원칙,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제단과 학교가 제산운영 및 학사 운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외대 발전에의 동참과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우리 교수들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 끌어들일 때 외대 발전의 활로가 트여지지 않을까. 밝고 희망찬 6월을 기대한다.

5·18을 광주만의 문제로 축소 보도해 지역감정을 부추켜

리더리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하여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고민, 갈등을 하게된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와 한학기 동안 대학이란 곳을 느낀 신입생들은 앞으로 자기 스스로가 꾸려갈 대학생활의 지표를 그려보고 졸업을 눈 앞에 둔 4학년 학생들은 앞으로의 자기진로, 그리고 가꾸어가야 할 인성에 대하여 많이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듯 결코 낭만과 감성으로만 지내기에는 만만치 않은 대학생활은 먼저 자아성찰로 부터 보다 성숙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올바른 자아관과 진로, 인생문제등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학생생활연구소(이하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고민과 갈등을 하는 학생들 또는 단순히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상담과 그에따른 검사를 실시해 준다. 그리고 취업에 관한 자료, 유학에 대한 정보등의 자료와 상담을 제공해 준다.

이 연구소에서는 각종의 다양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심리검사의 방법으로 성격진단, 자아개념, 직업흥미, 다면적 인성검사, 적성검사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검사들은 학생 자신이 원하는 검사만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상담원과 상담을 한 후 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검사를 할 수도 있다.

본교의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이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교수, 조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있어 미처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 연구소를 이용하고 많은 학생들이 연구소의 존재 자체도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신에게 현재 발생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대처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한다면 자기발전, 더나아가 사회발전에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 고

제목 : '93학년도 제2학기 모현학사(기숙사)생 모집 안내

본 용인캠퍼스 모현학사는 '93학년도 제2학기 남, 여 학사생을 다음과같이 선발코져 하니 희망 학생은 신청하기 바람.

1.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각건물 안내실 및 모현학사 운영과
   2) 접수기간 : 1993. 5. 24(월) -6. 18(금) 까지
   3) 원서접수처 : 모현학사 운영과(기숙사내)
2. 제출서류
   1) 입사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성적증명서(1학년은 해당없음) 1부
   4) 증명사진 3매
3.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통학거리 고려
4. 입사확정 : 서류심사후 입사확정자에 한하여 입사기간 및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93년 8월초에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것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과로 문의 바람
   모현학사 운영과 : (0335) 33-1692
   30-4103, 4102

1993. 5. 18

모 현 학 사 장

공 고

1993학년도 제2학기 교내 성적장학생 선발에 따른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신청기간 : 1993. 6. 1(화) -6. 30(수) 까지
2. 신청장소 : 학과장실
3. 신청서류 : 장학금 수혜 신청서 1부.
   (단,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재산세과세 증명서 또는 재산세비과세증명서를 장학금 수혜 신청시 제출)

1993. 5. 25.

학 생 처 장

공 고

1993학년도 제2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에 따른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신청기간 : 1993. 6. 1(화) -6. 30(수) 까지
2. 신청장소 : 학생처 장학계
3. 신청자격 : 1993. 1. 2-6. 30. 기간중 국가시행고시(사법, 행정, 외무, 회계사, 군법무관)에 합격한 재학생
4. 신청서류 : 가. 합격확인서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1993. 5. 25.

학 생 처 장

1993학년도 신입생 인성검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93년 2월) 기간에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를 해석, 상담해 드립니다

자신의 성격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1993학년도 신입생
- ●기간 : 1993년 5월24일(월) ~6월18일(금)
  오전 10시~오후4시
- ●장소 : 이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학생회관 2층)
  왕산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학생회관 2층)

1993. 5.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전 엑스포, 무엇이 문제인가.

꿈의 동산 엑스포, 가리워진 실체

이제부터 약10주 후에는 '93 대전엑스포가 대전 대덕연구단지 도룡지구에서 열린다. 대전엑스포는 88년 서울 올림픽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 국민들은 지난 서울올림픽에서 보였던 관심만큼은 아니지만 대전엑스포에 상당한 기대를 보내고 있다. 물론 정부나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도 국민들속에서 대전엑스포에 대한 고무된 방향과 참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견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는 당연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대전엑스포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인정하는 공식전문박람회로 그에 걸맞는 규모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박람회는 종합박람회 보다는 작은규모의 박람회이지만 집중된 주제속에 그에 관련한 산업・문화가 집중적으로 전시되는 박람회이다. 더구나 이번 대전엑스포에서는 상설전시구역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외형상 규모를 종합박람회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대전엑스포의 외형을 살펴보면 금년 8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전시되는데 국제전시구역과 상설전시구역에서 26개 전시관이 개관되고 여기에 약 120개나라, 24개 국제기구에서 전시관을 열게되며 총 62개의 행사가 전기간에 진행된다. 예상되는 관람객수는 외국인 30~50만명을 포함해 약1천만명으로 하루평균 약10만7천5백여명이 대전엑스포를 찾게 된다. 이러한 대전엑스포에 투자되는 돈은 엑스포 직접관련 사업비와 기반 사업, 주변여건 사업, 민간지출까지를 포함해 대략 1조 9천억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외형 때문인지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대도 다양하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많아 대책수립 필요

첫째, 이러한 대규모의 행사가 현재 한껏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전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이다.

둘째, 과학올림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셋째,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만방(?)에 떨쳐진다는 기대이다.

이외에도 대규모의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기대이다. 국제규모의 행사로 인해 교통망의 정비, 정보통신망의 혁신등 부산물에 대한 기대가 있다.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표명하고 이는 대전엑스포의 배경과 이념을 보더라도 조직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한편, 대전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대전이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대전 시민에게 있고 역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시샘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기대를 대전엑스포는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보면 단기적으로 수치상 생산, 수입, 소득, 고용에서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효과들이 대부분 건설업과 관광등 서비스산업에서 발생됨으로 인해 오히려 산업을 불안하게 하고 잠재적 실업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왕의 기술에 의지한 건설 부분에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첨단공법으로 시공되는 전시장 건설에서 대부분의 소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설계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 육성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전시관에 참여하는 부분에도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가장 핵심문제인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무역부분에서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이전 기술을 강제로 떠안게 되어 그기술에 의한 또 다른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무역이 증대된다해도 사실상 부가가치는 모두 선진국에 빼앗기게 되는 무역부분의 구조모순이 강화될 뿐이다. 한편 서울 올림픽이후에 서비스업의 비정상적인 성장등이 얼마나 우리의 경제구조를 왜곡 시켰는가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올해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 대전엑스포가 열린다.

87년 대통령 선거시 여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정부 전시용 행사로 이용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선보이는 것 뿐이기에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한 새로운 기술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기초과학의 발전에서부터 응용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과 이를 안정되게 지속하는 산학의 건전한 결합,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이를 위한 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사실 정부는 이런부분에 대해 정책이 없고 안일한 사고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전엑스포를 통해서 이미 개발 된 기술을 전시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더구나 대전 엑스포의 주제가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고 부제가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인데 전시관의 면모를 보면 과연 이러한 부제와 주제가 과연 의식적으로 관철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단지 분위기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분위기를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사를 치러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 국력을 널리 과시한다는 점에서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서울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현명하지 못한 국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그로인해 선진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또 문화면에서 쎅스산업의 나라로 알려지는 등 불명예도 안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커다란 국제행사로 대외적인 과시를 할 때가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때가 아니라 실속을 챙길 때이다.

이외에도 교통, 환경부분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통량은 대전 인근에서 약 3배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문제는 약간 개선 될 뿐이다. 또한 행사기간중에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되고 인근 하천을 더럽히는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 대전엑스포의 전반적인 준비에 있어서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은 철저히 소외 되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전시관 지역외의 모든 개발사업은 정지되어버려 지역 발전에 부조화의 극을 이루고 있다. 대전 유성지구가 거대한 위락단지로 즉 건전한 관광단지가 아니라 불건전 위락산업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전엑스포는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100일동안 거대한 오락시설이 설치되고 거기에 국민들이 돈을 쏟아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엑스포가 87년 대통령선거시 여당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고 정부의 전시용 행사로 준비 되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전시시설의 사후 운영의 문제, 환경 및 교통의 문제, 경제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신석・자유기고가>

열사를 통해 본 사회사 Ⅲ

강경대 열사와 91년 사회상

91년 4월 26일은 결코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날이다. 바로 이제 막 대학생으로 꽃을 피우려 했던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날이다.

강경대 열사의 치사사건은 시위 진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경제적 위기를 민중들의 손으로 떠넘기려 했던 지배세력의 의도가 노골화되었던 89년부터 이미 예견되었다.

강경대군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공권력의 무지비한 탄압은 4월 26일 이전까지 사회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기고만장하던 공권력이 기어이 백주대로에서 강경대군을 쇠파이프로 때려 죽였다. 그간 경제적, 정치적 분노를 속으로 삭여오던 대중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박승희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5월 열사들의 잇단 분신으로 상황은 더욱 고조되었다.

하지만 5월 투쟁은 한 대학생이 전경들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일시적 분노로 투쟁이 급고조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집중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간 투쟁의 열기는 사그러 들수도 있었다. 5.18 투쟁이 강경대 열사 장례식 성사 투쟁으로 번지면서, 정권은 장례식이 끝나면 더이상 정치적 이슈가 없어지기 때문에 투쟁의 열기는 사그러 들것이라 생각하고 광역의회 바람과 공세국면으로 돌아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5.18을 기점으로 5월 국면이 수그러들 것을 예상한 정권은 노내각 개편을 입증모색하고 있었으나 예상외로 국민들의 투쟁이 강하게 지속되자 정권은 여론 무마용 정책과 언론 플레이를 동시에 실시하기 시작했다. 진압 경찰 구속, 노재봉 내각의 사퇴 등으로 사건을 무마해보려고 했고 마지막 카드로 광역의회 조기 실시를 던짐으로써 야당 세력을 유혹하려 했다.

한편 정권은 5월 8일 김기설 열사의 분신 이후 '분신을 조종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서강대 박홍 총장의 '배후세력이 있다'는 망발이나 '죽음의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는 김지하 시인의 변절에서 시작된 분신 배후설과 학생들의 강경투쟁 양상이 전경들의 강력 진압을 유발시킨다며 양비론을 제도 언론을 통해 유포 시키면서 교묘한 여론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처음 김기설 열사의 유서대필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 여겼다.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타인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목숨을 타인의 강요에 의해 버릴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정권은 언론을 잊을만 하면 드러내고, 잊을만 하면 드러내고하는 식으로 노태우 정권의 학정에 초점이 모아지던 것을 엉뚱하게 '유서의 필적 논쟁' 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

5월 22일 노재봉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고 정원식 새총리가 임명되면서 개편이 이루어지지만, 그가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총리 취임 하루만에 김귀정 열사의 최류탄 질식사로 여론을 무마하기는 커녕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자 정권은 화려한 살신성인 시나리오를 그리게 된다. 노은사의 마지막 강의리는 미명으로 외대에 방문한 정원식 총리에게 '귀정이를 살려내라'는 등의 본교생의 밀가루와 계란의 항의투쟁을, 한낮 헤프닝에 불과한 사건을 정권은 반인륜적 행위, 패륜아, 계획된 폭력 사건 등의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5, 6월 수세국면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활화산 처럼 타올랐던 5, 6월 투쟁이 정리되었지만 87년 6월 항쟁 신화를 부활시켰다.

〈사회부〉

기자의 눈

벗어나고파

"광주학살 진짜주범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3천여명 청년 학생들의 우렁찬 구호와 함성은 운동장을 쩌렁쩌렁 울리게 했다. 지난22일(토) 단국대에서 열린 '광주학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한반도 긴장고조 주범 미국반대를 위한 한총련 결의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눈빛은 반미의 결의로 자못 비장하기까지 했다.

이번집회의 의의와 우리가 왜 반미투쟁을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짧은 시간이나마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운동장 스탠드가 거의 채워질 무렵, 문선대원들의 율동공연은 산만했던 집회분위기를 한곳으로 모았다.

연사들의 '반미투쟁'에 관한 연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때 학생들 사이에 자그마한 모금함이 돌아가고 있었다. 명동성당에서 광주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었는데 모두들 작은 성의를 모았다. 벤치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저씨가 5백원짜리 동전한개를 선뜻 내시는 모습은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단국대 근처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신다는 전병만(46세)씨는 "학생들의 우렁찬 소리를 들으믄 나두 모르게 힘이 솟는다니께. 이런 자리에 그 양놈들이 왔으면 속이 시원하겠구먼"하며 잘 들리지 않는 마이크소리에 서투르지만 학생들과 함께 구호도 외쳤다.

손 한아름 돌을 날라다 주는 국민학생인 듯한 꼬마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오늘집회의 성격을 알고나 있는지 알 수 없다.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랑'을 먹고 자라나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최루탄 냄새를 맡으며 돌을 나르고 있는 모습은 '식민지 조국'이 잉태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북한 핵사찰 강요, 우루과이라운드를 빌미로한 수입개방 압력, 팀스피리트 훈련 강행,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등. 도대체 우리나라와 미국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매 사안마다 미국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인가. 현재의 정국이 이러하기에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은 정치・경제적인 예속을 거부해야 할 뿐만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 등에 오염될 수 없는 것이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가에서 "상호야, 우리이제 영문글지가 새겨진 T셔츠를 입지말자." "그래요 형, 가방도 우리제품을 사서 메고 다닐래요"라는 말을 하며 생활속에서 반미를 구현하려는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재우 기자〉

7·9급 공무원
※ 7급(136명), 9급(479명) 합격시킨 전통의 전국최대시설, 최고강사진!!
▶7급 : 93년 7월 시행대비 ▶9급 : 93년 9월시행
★행정직, 기술직, 세무직, 감사직, 전산직, 법원직, 검찰직
▶교재 7급과목별 기본교재 9,000원~10,000원
9급과목별 기본교재 8,000원~9,000원
▶강의 기본이론(2개월), 문제풀이(1개월)-개강:6월1일
▶시간 오전반(09:00부터), 야간반(19:00부터)
※적중예상문제새벽무료공개특강(07:30~08:30)
※공무원시험정보·안내 책·실제문제무료배부중!!

한국통신·이동통신
★4·6급행정, 통신기술, 전산직:93년 11월초시행
▶영어, 수학, 사회, 전자계산, 물리 : 각권 9,000원
▶강의 기본이론(2개월), 문제풀이(1개월)-개강:6월1일
※적중예상문제새벽무료공개특강(07:30~08:30)
※한국통신시험안내책, 실제문제무료배부중!!

공인仲介士
▶교재 - 각과목별기본교재 각권 7,000원
기출예상문제분석 정가 7,000원
▶강의 - 1,2차종합반(2개월완성)-개강 : 6월 1일
오전(10:00~13:00), 야간(19:00~22:00)

鑑定評價士
▶교재 - 각과목별기본서 각권 10,000원
기출예상문제 분석 정가 10,000원
▶강의 - 1,2차종합반 각2개월완성-개강:6월1일
오전(10:00~13:00), 야간(19:00~22:00)

法務士특강
▶교재 - 각과목별기본서 각권 10,000원
▶강의 - 1,2차종합반 각2개월완성-개강:6월1일
오전(10:00~13:00), 야간(19:00~22:00)

육서당교재강의학원 개강 6월1일
· 서울:한교고시(817-6002) · 서울:삼정고시(472-3799)
· 대전:대전고시(253-9642) · 대구:행정고시(423-0066)
· 부산:행정고시(803-6868) · 인천:한국고시(427-6500)
· 안양:제일고시(68-9000) · 청주:행정고시(54-1990)
· 수원:행정고시(46-4500) · 전주:행정고시(75-9020)
· 마산:마산고시(43-7007) · 이리:행정고시(858-9020)
· 인천:한교고시(862-9936) · 안동:영남고시(54-3000)
· 전주:행정고시(57-0017) · 영주:제일고시(2-6388)
종로서적, 을지서적, 동화서적, 교보문고, 서울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국민문고, 영풍문고, 신촌문고, 영풍도서, 동보서적, 제일서적

한교고시학원
· 노량진역앞(817-8366·7)
· 노량진역앞(813-6004·5)
공평학원 종각역(735-0555)
삼정고시학원 천호동(477-7044)

司法試驗·行政高試
법원사무관 입법고시 기술고시
★종합반, 단과반기본강의 8주 완성
★저명교수단기특강 : 4주 완성
· 헌법, 민법총칙, 한국사, 정보체계론
· 민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 경제원론
· 행정학, 상법, 행정학, 정치학, 문화사
· 국민윤리, 국어, 고시영어, TOEFL
· VOCA, 독일어, 일어, 중국어, 불어
한교사법행정연수원
신림동 고시촌 현대아파트입구(874-3011~2)

외국어강좌
· TOEFL, VOCA, 영어순해, 기본영어, 종합영어
· 어린이영어·중1,2,3영어, 기초영문법, 어머니영어
·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문법 및 회화
※고시별과목 및 외국어강사채용(경력자)
※공개강좌-5월30일 13:30~20:00
한교외국어학원 개강 6월1일
노량진역앞(812-4144, 812-0678)

교육학+전공특강
★94초·중등교사및 양호교사·유치원교사시험대비특강(교사임용시험완벽대비·실제문제무료배부중)
★교육학전공(교육과정)실제예상문제집-각권12,000원
▶교재
· 수험교육학(한민석저:14,000원)
· 요해교육학(신정철저:12,000원)
· 완전교육학(구평회저:15,000원)
· 수험간호학(김일옥저:12,000원)
· 간호학예상문제집(김일옥저:6,000원)
▶강의-저자직접강의중
· 기본이론(2개월), 문제풀이(1개월)-개강:6월1일
· 시간:월,화,수반(주,야), 목금토반(주,야), 주말반

고시·승진
행정법 송희성 박사
행정학 강길봉 교수
헌법 황성필 교수
경제학 송인권 교수
형법·형소법 서윤길 교수
민법·민소법 박종문 교수
전산학 오귀종 교수
TOEFL 윤원우 교수
VOCA 최상봉 교수
정보체계론 임춘근 교수
민법총칙 박종문 교수
회계학 최병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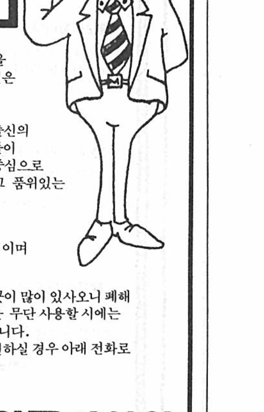
육서당 전국지사 및 교재구입처
· 서울:817-6007 · 부산:88-0204 · 대구:255-0012
· 대전:254-2276 · 청주:54-4124 · 전주:82-5660
· 안양:68-2985 · 마산:43-8080 · 목포:74-2932
· 수원:46-3166 · 광주:222-8260 · 이리:51-2001
· 인천:437-7676 · 천안:567-6440 · 안동:54-2288
· 광주:43-2089 · 울산:45-1163 · 원주:44-1294
· 의정부:43-2210 · 포항:47-6345 · 성남:751-9400
· 마산:45-5554 · 순천:51-0508 · 영주:34-3920
· 춘천:53-8192 · 제천:43-3289 · 강릉:43-8508
· 진주:42-0067 · 제주:53-0075 · 이리:53-1074
· 광주:225-0680 · 전주:85-3330 · 충주:44-3410
· 부산:819-8001 · 전주:84-6658 · 서울:817-6003
도서출판 육서당(817-6004·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3 (TEL. 824-7246·7 FAX:824-3182)
●시험정보센터·육서당(노량진역앞:817-6007·8)

行政學 原論
※姜吉奉교수 著(정가 14,000원)
※요해행정학(정가 10,000원)
※객관식행정학(정가 10,000원)
行試·5級昇進·7級公採對備書
※노량진 한교 고시학원에서 저자 직접강의 중(土,日)

전산학개론 / 전자계산일반
한국통신전산직시험대비 7·9급공무원
김인재·오규종교수공저
정가 10,000원 / 정가 9,000원
※노량진 한교고시학원에서 저자 직접강의 중(月,火)
개강:6월1일(2개월 완성)
한교고시학원
●노량진역 앞(817-8366~9)
●노량진역 앞(813-6004~5)
육서당
동작구 노량동 72-3 (TEL:824-7246·7 FAX:824-3182)

5月의 마지막 축제
〈무료관람〉
당신을 초대합니다
팝송 경연대회
5/29. 3 PM
10개팀 참가
Dance with her
발레, 뮤지컬
댄스 레이저
하이라이트
누구나 오십시오
전화문의 환영
대표전화 568-3322
강남역 6번출구
이익훈 어학원

눈과 머리에서 입과 귀로
개강 : 6월 1일
오리엔테이션
6월1일 AM : 7시 PM : 8시
인터뷰 : 마지막주
日本語 회화
★듣고→말한다
→듣고→쓴다
체험학습 60分
★한인, 일인연계강의
I.M.I 영어회화
★전원 Native speaker
★Level 5단계 각 3개월
컴퓨터 영어회화
보고, 듣고, 느껴서 입으로 줄줄 쏟아지는 기적의 영어학습으로 아주 쉬우면서도 흥미있게……
Host Family가 되어 보십시오!!
세계 각국에서온 외국인과 1~4주간 같이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E.I.L KOREA
문의 816-2030
일미일외국어학원
노량진 전철역 옆 일미일B/D
☎817-9362·3

파고다 외국어 학원은 서울의 2곳(종로2가·강남 압구정)외에는 전국 어떤 곳도 없습니다. 본 학원명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곳은 본원과는 아무관계 없음을 밝힙니다.

24년간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파고다 외국어학원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외국어 능력요원을
육성 배출하기 위해서 8개국 출신의
수많은 외국어 교육의 전문가들이
설립자이신 고인경 이사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시간을 바쳐서 정확하고 품위있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전력해 왔습니다.

파고다의 이름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보람입니다.

근간 본학원 이름을 도용하는 곳이 많이 있사오니 폐해 없으시기 바라오며, 본학원명을 무단 사용할 시에는 상표법위반으로 중처벌받게 됩니다.
본학원명을 도용하는 곳을 발견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고다외국어학원
(종로 275-9880/강남 압구정 515-4020)

보도기획

교수협의회, 무얼 하는 곳인가?

대학민주화의 선봉장, 교수협의회

교수협의회. 과연 무엇을 협의하고 어떤 권한을 가진 단체일까?

아직 본교 학생들에게는 '교수협의회'라는 이름이 친근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 또한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를 자신의 이해관계를 논의, 협의하려는 노력보다는 냉랭한 관찰만을 하는 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은 학내에서 어떤 위치이고 그들은 어떻게 힘을 모을수 있는지 다른 대학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성균관대에서는 지난 91년 '봉명제단'의 퇴진요구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또 당시 시국과 관련해 여러 학생들의 분신자살 이후 성대생 김귀정양이 시위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내외적으로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때 성대 교협에서는 '부정한 봉명제단 퇴진'과 '김귀정 사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시국사건은 이후 정세에 의해 빛이 바랬지만 제단퇴진은 학생들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실행에 옮겨졌다. 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대로 재단이 퇴진한 성대는 현재 전입금없이 학생동록금만으로 91년이후 해마다 30명이상 교수 신규채용을 하는등 건실한 운영을 하고 있다.

본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체교수회의'이다. 내용과 형식에서는 다소 차이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나 아직까지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고리 역할을 교수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는 확실하다. 성대 교협 회장인 김선종 교수(교육학과)도 "학내 민주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며 교수들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본교 교협의 위상은 학내에서 조금 낮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교협이 학생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것도 그동안의 활동상황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협의 기능으로는 △총장 임면에 관한 동의 △학칙개정, 인사행정등 학교운영 방침의 정취, 의사개진 △학교예산 청취 및 의견개진 등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막상 총회가 열리는 것은 1년에 두차례, 그러나 이 총회는 특별히 소집된 모임이 아니라 총장 주재로 열리는 전체교수 간담회의 2부순서로 진행되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들이다. 이 총회에서는 학교운영의 전반적 논의보다는 교수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으로

교협 총회, 교수간담회의 2부행사로 진행

외대발전을 추진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전해진다. 지난해 복지위원장을 맡았던 변광수 교수(스웨덴어과)는 "다른 대학과 교수들의 봉급, 복지환경을 조사, 보고하고 이의 개선책을 논의한다"고 이야기한다.

교협 총회가 거시적인 학교발전 논의보다 교수들의 복지향상 협의에만 거지는 원인으로 '총장, 부총장 등 모든 보직 교수들이 함께 자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자칫하면 총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성토분위기가 조성되기 쉬운 사안은 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어떤 교수는 '좋은게 좋다'는 의식아래 '거친 호랑이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는가'는 비유를 들어 교수들의 어려움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교협 회원을 가입제로, 즉 보직교수는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나는 회원, 당신은 비회원'이라는 파벌조성과 피리감 형성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난관에 부딪혀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교협의 위상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교협의 활동강화를 위해서 회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아래 강석영 교수(서반아어과)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칙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협 회장인 김정위 교수(이란어과)는 "그동안 활동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교협이 이제는 뭔가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취지를 밝혔다.

교협은 교수들의 절대적 요구인 '연구실 확보'를 위한 대책협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회칙에 명시된대로 '교수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대학민주화와 학문,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본질적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은 기자>

오늘의 화상

강의, 이대로 좋은가

잦은 휴강과 조기종강, 강의의 흐름 끊어

수강신청전 공개강의 실시도 도입돼야

꿈많은 새내기, '진리의 상아탑'으로 동경해 온 대학에 들어와 처음 수강신청이라는 것을 했다. 교과목 이름은 '한국정치·경제사'

한 학기동안 바짝없이 수업을 듣고 보고서도 충실히 제출했으나 종강때는 항상 허전함이 남아있다. 가르친게 없다는 허무함은 교수에게도 동일하다.

잦은 휴강과 조기 종강, 강술발표가 있다거나 집안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외 정기학생총회, 축제나 단과대의 체육대회가 있는 날도 휴강의 단골손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수들이 강의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바라는 제1순위가 '학생 행사를 수업이외 시간으로 정하여 강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일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도 결강의 주요한 이유.

이러한 원인들로 한달에 수업을 한시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예로 용인캠퍼스 수요일 수업의 경우 4월 14일에 종간고사를 앞당겨 보고 21일에는 시험기간이라 휴강, 5월 5일은 어린이날, 12일에는 축제때문에 강의를 한 시간도 못하고 한달을 넘겼다. 포항공대의 경우 수업시간외 시험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3시간씩 연강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2시간 정도에서 강의를 마친다. 능률상 교수는 물론 학생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이를 바라지 않는다. 교수들, 시간강사들의 편의를 위해 3시간을 연강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말고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조기종강 하는 사례도 허다한데 1학기 하사행정 마감일인 6월 18일(6월 셋째주) 까지 강의하는 모습도 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강조 강의과목에 대한 설명과 수강신청과목 변경으로 3월을 보내지 않는것도 숙기로 은 방법이다. 먼저 수강신청을 하기전에 공개강의를 실시하고 수강신청을 하는것도 필요하다.

의준비 부족 이러한 것들이 '강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물음을 초래하는 궁극적 원인들이다.

개강초 강의시간표에 표시된 교수와는 다른 몇몇 시간강사, 과목이름과는 상관없는 강의등도 한몫을 한다. 철학개론 시간에 '사회정의론'을, '생명의 이해' 과목에 천체·지구과학을 강의하는 것이 본교 강의풍조의 한 단면이다.

휴강으로 강의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먼저 담당교수의 개인사정, 이를테면 학

◇외대발전 이것부터-단대발전안

외대 사회과학관의 한지붕세 가족인 법대, 상경대, 정과대의 단대발전의 희망사항은 무엇일까?

그것은 셋방살이의 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이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유망단대라는 이름을 들으면 과대의 발전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정과대는 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교육환경이 뛰어난 학교 보다는 진리의 진보를 추구하는 대학으로서 '외대의 진보화'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과대는 진보적인 교수의 충원과 교과과정의 효율적 개편에 보다 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단기사항으로 사회과학관에 2중창 설치와 강

한지붕 아래 세단대, 독자건물 확보절실

거를 하며 눈치밥을 먹는 신세는 사실 외국어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타대학의 상경, 법정계열이 1단대에 1건물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도 본교는 아직까지 상대와 정과·법대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요구에는 미흡한 답변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외에도 법대는 지난해 학교측과 합의한 고시원문제를 중심으로 법대의 증기부자발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법대 학생들은 지난해 학교당국과의 합의서에도 '고시원을 캠퍼스 밖으로 새로이 이전을 한다'는 약속이 있는만큼 융해 안에 학생회관의 소음으로 관란을 겪는 고시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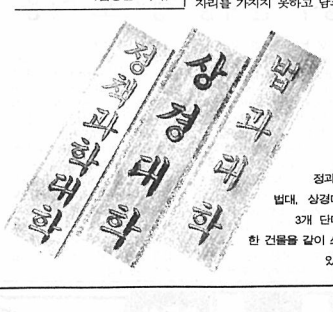
추가로 법대생들은 단기요구사항으로 법대의 전공도서 확충을 위한 학교당국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교육환경 개선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보이던 정의실 개방시간 연장, 조명·방송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상경대의 경우는 시설이 타대학보다 낙후되었다고 평가하는 상경대 전산실의 개선을 단기 요구사항으로 설정하고 전산실 다운 기지재 확충과 공간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과학관에 속해있는 '외대의 찬밥'이라고 불리는 상경, 법, 정과대 학생들의 복지사항은 다른 어느 단대보다 단대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며 생존권적인 요구이다. 그동안 어하계열의 투자로 빛좋은 개살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초라한 상경, 법정계열.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부>



정과대, 법대, 상경대등 3개 단대가 한 건물을 같이 쓰고 있다.

화이트 하우스

○…왕산에 휴산들이 앞지 못하는 박물관이 있다기에 크로니클지가 탐방하니….

박물관은 다름아닌 일명 회이트하우스인 고시원. 이곳에 왕산 유일의 피세식 화장실과 심지어 동물우리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

공부하고자 모인 휴산들에게까지 이런 푸대접을 하면서 상아탑의 진리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상아탑의 진실은 과연 무엇…

○… '후세인'의 후계자 지리를 놓고 지정 이문파와 왕산의 열띤 체육경기가 열려 '쉬아파'와 '순니파'의 대결을 연상케 했다는데.

천국 방방곡곡 아랍어과 학생들이 이문밀에서 벌인 대동제에서 이문, 왕산 휴산들의 경기에 어느팀을 응원할 지 주저하는 교수님들을 보며 크로니클지도 갈팡질팡.

이문, 왕산 휴산들! 친선 경기를 겨울삼아 내년엔 단일 휴산팀으로 참 가해 다른 학교의 귀감이 되면 어떨런지….

○…덕진, 덕일, 철언이… 그리고 꽃그림 맞추기 아저씨들께.

슬롯머신인가 그 기계속엔 돈먹는 하마가 들었나요, 뇌물은 절대 안받았다고 거짓말 시키는 마녀가 들어 있나요. 검찰앞에서 진술도 같은걸 보면 입도 꽃그림 맞추는 것처럼 연습했나보죠.

지하경제의 대부들이여! 지상에 있는 큰집에서 쇠고랑의 붉니 마출을 다같이 해보시면 어떠실는지.

○…지난 21일 한성대에비가와, 우산팔러간 우산장수들이 모두 울고 돌아왔다는데.

제작중지, 편집자율권 침해 등의 대학신문언론탄압을 규탄하는 전국대학신문기자들이 오는비를 맞으며 집회를 한것이 그것.

상아탑의 신성한 신문을 관제언론으로 만들려는 교육부, 학교당국 이르신네들. 김영삼 대통령의 사정의 칼로다 대학언론 일꾼들의 펜끝이 더 무서움을 명심하시압!

○…"새벽이 왔다면서 닭모가지는 왜 비트냐"는 목쉰 하소연을 한 정치인이 있다는데.

닭 모가지는 권력에 여눌려 힘은 없으나 정의감에 차있는 야당의원을 가리키는 뜻으로 한 말이었으나 5·6공의 황태자가 닭모가지될 자청한것.

닭도 삼계탕도, 토사구팽도 좋으나 야당 1년도 안된 신출나기가 헌정 40년 야당사를 욕되게 해서는 안될것.

닭모가지와 황태자

비둘기 칠판

광고문의 : (이문) 961-4152, (왕산) 30-4112.

■모집합니다.

한총련 출범식을 도울 '선봉대'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문·왕산 총학생회—

■교지 받아가세요

교지 31호를 미처 못받아 가신 분은 교지편집실로 오셔서 가져가세요.

이문 : 학생회관 2층
왕산 : 학생회관 3층

—'외대'교지편집위원회—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1993년 5월 24일부터 신입생 인성진단 검사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으니 신입생 인성진단을 받으신 학생들의 이용바랍니다.

—학생생활연구소—

왕산골

■학우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왕산 노래패연합이 드디어 첫 공연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장소 : 노천극장
일시 : 5월27일(목) 오후1시

—왕산 노래패연합 건준위—

■'책'을 찾습니다.

장소 : 교양관 201호근처
날짜 : 5월 4일
책의 이모저모 : 제목은 「주홍글자」, 도서관 대출용 도서(148313) 녹색표지
분실자 : 일본어과 윤세란
연락처 : 일본어과사(4234), 학회방(4480)

■노래패

동대 노래패가 탄생했습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대 노래패—

■Home Coming Day(—친정가는날—)

언제 : 5월28일(금) 오후 2시.
5월29일(토) 오후 12시
어디서 : 외대 바실레이아
얼마 : 5천원(기념품+식비)

—C·C·C—

■영어과 89모임

모이는 때 : 5월27일(목) 5시20분
모이는 곳 : 학생회관 매점
모이는 이유 :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SJ—

■일본어과 원어연극반 '히아토'

장소 : 교양관 201호
날짜 : 5월 27일
시간 : 오후 5시 30분
제목 : '집주인의 상경'

이문벌

■열쇠를 찾습니다.

분실일시 : 5월10일(월)
분실장소 : 핸드볼 경기장
3개의 열쇠가 달려있어요. 습득하신 분은 학보사에 전해주세요.

—착한 비둘기—

■찾습니다.

5월19일(수) 10시50분쯤 트레이닝실에서 흑갈색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태국어과 학생회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회 외대 농구대잔치

기간 :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외대농구부—

■공연합니다.

외대의 순수 합창 문화를 선도하는 외대합창단에서는 제6회 Harmonia may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 : 5월27일(목) 늦은 5시
장소 : 대학원 소강당

—외대합창단—

■산을 오릅시다.

노고단 운해, 세석의 철쭉, 천왕봉의 일출봉이 그리우신 외대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시 : 5월27일~5월30일

—외대산악부—

■유럽여행에 도전해 봅시다.

sbs "태평양 횡단퀴즈"에 참가하실 동아리는 많이많이 오세요.

—동아리연합회 문화부—

■군입대

김태범(한교 2. 휴학) 형 군대 잘 다녀오세요.

—인항·부광 동문후배들—

동문회

(왕산)

■이대부고 동문회

일시 : 6월2일(수) 오후 5시
장소 : 학생회관 강동
회비 : 2천원

양캠, 한총련 출범식 참가준비 활발

서울, 동총련 출정식 … 용인, 노래패 공연

27일 노천극장에서 각각 출정식 개최

오는 27일(목)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고려대에서 개최되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27일(목) 오후 1시부터 '출범식 사수결의대회및 출정식'을 양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각각 개최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그동안 출범식 참가학생들을 지원봉사단, 선봉대로 모집해 오면서 한총련 출범식의 의의를 선전했다. 27일 오후1시부터 열리는 집회는 동총련 사전결의대회로 출범식 3대기조인 △교육대개혁 투쟁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투쟁 △반미조국통일투쟁을 결의하고 청량리를 거쳐 고려대학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출범식을 맞아 각 단대, 과별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VTR상영,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 전대협의 역사를 알리고 한총련 건설 의의에 대한 대중적 공유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27일(목)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출정식에는 왕산노래패연합 건준위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래공연과 풍물공연 등이 펼쳐지고 '왕산조국통일위원회' 출범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총련출범식은 27일(목)전대협 6년역사를 총화하는 문화공연과, 역대 전대협출신 선배들과 재야 민주인사들이 펼치는 축하공연으로 전야제가 열린다. 28일(금)에는 각 부문운동계열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새내기 예비역 한마당 등이 펼쳐지고 제4기 조국통일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된다.

출범식의 절정을 이루는 이날 밤에는 의장웅립, 1년사업 공유, 축사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29일(토)에는 폐막제와 함께 반미비핵, 평화실현 결의대회가 열리고 6공비리 청산과 교육대개혁을 비롯한 민주대개혁 요구투쟁을 연대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침으로써 1기 출범식 모든일정을 마치게 된다.

대생협, 제7차 조합원 총회 개최

예결산 보고·사업계획 인준

대학생활협동조합(대생협)이 어제 24일(월) 학생회관 식당에서 제7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2년 결산보고, 93년 예산보고와 함께 대생협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조합장 황영묵(인문·사학4)군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5년째 접어든 우리생협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7백여 조합원의 참여와 지지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대의원회와 감사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이후 대생협사업들의 인준절차를 가졌다.

주한 베트남대사 부인 초청강연 가져

서울캠퍼스 베트남어과 학생회는 오는 26일(수) 주한 베트남대사 부인을 초청, '베트남언어와 문화'란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시청각교육원 202호 세미나실에서 열리게 될 이번행사는 베트남과 수교이후 본교에서는 처음으로 갖는 행사라 그의의가 크다.

아랍어과 대동제 열려

전국서 3백여명 참가

'전국 아랍어과 대동제'가 지난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본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본교 서울·용인 양캠퍼스와 명지대, 조선대, 부산외대 등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동제는 21일 오전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와 문화공연, 대동제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 기간 서울캠퍼스 아랍어과 학생회는 붉은광장에 아랍어 사용22개 국가에 관한 기획전시전을 가졌다.

22일(토) 폐막식에서는 종합우승팀으로 부산외대를 시상했으며 내년에 본교 용인캠퍼스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서울과 용인캠퍼스 아랍어과 학생들은 같은 학교 학생임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나 준비가 없어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본교 공공정책 연구소

학술 세미나 열어

본교 공공정책연구소(소장 구자용 행정학과 교수)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전망과 경제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본교 이장희 교수(법학과)는 동서독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민족통일연구원 남궁영씨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상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후 이정희 본교 정외과 교수, 이정수 통일연구원 교수, 박홍렬 통일원 교류협력국 협력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 세미나는 지난 21일(금)사회과학관에서 열렸으며 통일원이 후원했다.

<관련기사 5면>

5월 영령의 뜻을 이어 한총련 소속 5천여명의 학생들은 지난18일(화)연세대에서 '광주민중항쟁 기념식 및 그 책임자 미국의 공개사과와 전두환, 노태우 구속처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훈성 기자>

한총련, 5·18 진상규명 촉구대회 개최

미국의 공개사과, 전·노전대통령 구속요구

본교생 2백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5천여명의 학생들은 지난 18일(화) 오후5시께 연세대 도서관앞 광장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식 및 그책임자 미국의 공개사과와 전두환·노태우 구속처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대회를 마치고 연희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려다 경찰이 저지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경찰의 최루탄 난사, 곤봉진압으로 본교생 류중건(인문·사학2)군 등 1백여명의 학생들이 크고작게 다쳤다.

또한 지난 22일(토) '반미의 날'을 맞아 한총련주최로 단국대에서 열린 '광주학살 배후조정 미국규탄대회'가 수도권지역 대학생 3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졌다.

이날 학생들은 단국대에서 미대사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려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부산되자 종로서적에 재집결하여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가졌다.

용인, '동대인 대동의 날'열어

공동체놀이·민속문화 창달의 장

동양학대 학생회는 지난 20일(목)단대 학생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동대인 대동의 날'을 소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남녀 팔씨름대회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회장 김상회(동학·태국어 4)군은 "기존의 체육대회 형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공동체 놀이문화와 민속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1천2백동대학생들이 하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팔씨름 대회에 이어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 5종경기, 5·18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팀과 책임자 처벌팀으로 나뉜 차전놀이, 동이 계속됐다.

이날 대동놀이에서 마인어과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용인 동아리 연합회

대표자회의 열어

용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는 지난 21일(금)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5월 동연정기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5, 6월 동연 사업평가 및 계획작성, 복지공약사안 경과 보고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총련 출범식을 맞이해 한총련 건설 의의에 대한 교양과 광주성지순례 보고 및 농촌 봉사 활동 참가 결의를 다졌다.

본교 법학연구소

법률정보 특강 실시

'법률정보 데이타베이스 특강'이 본교 법학연구소(김지수 소장, 법대교수)주최로 18일(화)4시 연수원 109호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류인모(경희대. 법대)교수와 한국법률정보시스템(KOLIS)직원이 강사로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제반적인 설명회를 가졌다.

데이타베이스란 일반인이 법률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법학도·법조인에게 많은 정보를 정리·검색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한다.

외대산악회, 지리산

등반대회 예정

외대산악회는 오는 27일(목)부터 31일(월)까지 내년 산악회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94페루 블랑카산군 등반을 대비한 93춘계 지리산 등반을 갖는다. 박병호 지도교수 외 2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등반은 집단능선종주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외대인의 산행능력 배양과 국토애 함양의 지리가 될 것이다.

취업설명회 열려

졸준위 주제

지난 20일(목)오후2시 도서관 4층 세미나실에서 취업설명회가 있었다. 이는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정보와 올바른 사회진출에 대해 강연했다.

용인, 여주군 일대 봄농활 수행

농학연대…범국민 쌀수입 저지 다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여주군 흥천면 일대 10개마을로 1백50여명 학생들의 참여속에 봄 농촌봉사활동(봄농활)을 수행했다.

이번 봄농활은 5월정세와 각 단위학생회 일정으로 대폭 그 준비정도와 규모가 축소됐고 여름농활을 준비하는 답사농활 형식으로 치뤄졌다.

특히 이번 농활은 미국의 쌀 수입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국민적인 쌀 수입 저지를 실현하기위한 농학연대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농활 참가학생들은 비록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적은 인원이 참가했지만 농활의 의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체코 찰스대 총장

초청강연회 가져

본교의 자매결연대학인 체코 찰스대 라딤팔로시(Radim Palous)총장은 금일 본교로 부터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대학원 6418호 강당에서 "우리시대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한다.

이사람

"지금까지 왕산에서 문예운동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문예일꾼들에게 인식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문예운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용인캠퍼스에서 '노래패 연합'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양현영(서하·유고어 4)양의 말이다.

올해들어 용인캠퍼스에는 각 단대별로 노래패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지연대 '울림쇠', 서양학대 '그루터기', 인문대 '절름발이', 사회대 '늘푸른 청년'이 그것이다. 이 모임은 아직 과별로 노래패가 꾸려지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된 모임부터 활성화시켜 나가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문제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각 단대별 노래패는 노래패연합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이들은 공연 준비에 열심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가 그 노래공연의 제목이다. 27일(목) 노천극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올바르지 못한 우리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고민과 전대협의 역사와 한총련 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참여하는 노래일꾼 만도 30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왕산에서 문예운동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용인캠퍼스 노래패 연합 준비위원양현영양을만나>

공연에서도 연출, 기획 등을 맡으면서 한몫을 다하고 있는 양양은 "아직도 창작기량이나 노래수준은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연준비 자체가 우리에겐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투쟁없이 단련되지 않듯이 노래패연합의 건설과정 또한 예외가 아님을 강조한다.

또한 4월 중순부터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성과에 대해 그는 "서로에게 하려는 의욕을 심어주었고, 노래패 연합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히고 "이 공연을 계기로 여름방학 중에는 왕산 노래학교를 개최해 노래패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충실히 고민할 것"이라고 노래패 연합 건설을 위한 이후 사업계획도 간략히 설명한다.

'아직은 허점이 더 많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그의 말처럼, 기획, 연출, 조직사업까지 1인 3역을 하면서도 자신에 차 있는 그의 눈빛처럼, 용인캠퍼스 문예운동의 전망은 2학기 '노래패 연합 건설'에 대한 전망과 함께 밝아 보인다.

<박재철 기자>

학과움직임

◎서울 서반아어과, 오는 26일(수) 학술발표회 예정

서울캠퍼스 서반아어과 학생회는 내일 26일(수) 오후 5시 시청각 교육원 405호실에서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동아리 소식

◎양캠 서우회,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제9회 '임서전' 공동개최

양캠퍼스 서예동아리 서우회는 제9회 임서전을 양캠퍼스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공동개최한다. 용인 캠퍼스는 지난 20일(목)부터 이틀간, 서울캠퍼스는 어제 24일(월)부터 오는 26일(수)까지 진행된다.

◎용인 하얀공간, 오는 27일까지 미술전시회 개최

용인캠퍼스 미술동아리 하얀공간은 어제 24일(월)부터 오는 27일(목)까지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정기 미술전시회를 개최한다.

◎용인 무술동아리 무예로, 무술시범대회가져

용인캠퍼스 무술동아리 '무예로'가 지난 19일(수)학생회관 앞에서 태권도, 합기도, 격파 시범대회를 가졌다.

◎서울 검도부, 지난 22일 호구식 열어

서울캠퍼스 검도부는 지난 22일(토) 노천극장에서 검도복중 머리에 쓰는 호구식을 개최했다.

◎서울, 기독학생연합회, 오늘부터 슬라이드 상영

외대기독학생연합회에서는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하는 주제로 슬라이드 상영을 포함한 강의를 오늘 25일(화)오후 6시 대학원 지하 6002에서 연다.

이 강의에서는 고대 성인화 교수(의과대학)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 농구부, 어제부터 농구대회 열어

농구부 주최 제1회 외대 농구대잔치가 어제 5월 24일(월)부터 6월1일(화)까지 시청각 교육원앞 간이 농구장에서 열린다.

참가과는 27개과로 하우들의 요청과 농구부 선배들의 지원속에 펼쳐진다.

<알림>
이번주 외통수는 화자의 사정으로 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1993학년도 각 대학원학생모집 (후기)

대 학 원 (☎ 961-4104, 962-7117)

1. 모집과정 및 학과·인원
   가. 석사과정 : 각 학과 약간명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이태리어. 힌디. 국어국문학. 포르투갈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언어학. 동유럽어문학. 철학. 사학. 아주지역연구학. 중남미지역연구학. 중동지역연구학. 동구지역연구학. 서구지역연구학. 아프리카지역연구학. 북미지역연구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수학. 물리학. 화학. 전자계산학과
   나. 박사과정 : 각 학과 약간명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철학. 국제관계연구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수학. 물리학. 화학과
2. 원서교부 : 1993년 5월 31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3. 원서접수 : 1993년 6월 7일(월)부터 6월 11일(금) 17시까지
4. 전형일시 : 1993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부터
5. 전형방법 : 필답 및 구술시험
   가. 석사과정 : ① 전공 ② 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③ 구술시험
   나. 박사과정 : ① 전공 ② 영어 ③ 제2외국어 ④ 구술시험

무역대학원 (야간) (☎ 961-4109, 962-7118)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석사;무역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과
   나. 경제학석사;국제경제학. 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 : 가. 석사과정: ① 논문 ② 외국어(23개국어중 택1) ③ 면접
   나. 연구과정: ① 서류전형 ②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3년 6월 1일(화)부터 6월 15일까지
5. 시험일시 : 1993년 6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 비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시험에 특전있음.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을 특별우대함.

교육대학원 (☎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명
2. 전공분야 : 어 문 계;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인문사회계;역사교육, 윤리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철학교육
   실 업 계;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 : ① 필답시험(전공) ② 면접
4. 원서교부 : 1993년 6월 1일(화)부터 6월 18일(금)까지
5. 원서접수 : 1993년 6월 14일(월)부터 6월 18일(금)까지
6. 시험일시 : 1993년 6월 26일(토) 오후 2시

* 현직교사는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 재학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함.
* 초. 중등학교 현직교사, 교감, 교장 및 장학사, 연구사, 교육행정직 5급 이상의 직급에 재직중인자는 입학시험을 거친후 입학정원의 50%이내에서 특별전형할 수 있음

정책과학대학원 (야간) (☎ 961-4093, 962-3950)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명
2. 모집학과 : 공공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언 론 학 과(신문방송전공, 광고홍보전공)
3. 시험과목 :
   가. 석사학위과정 : 공공정책학과;①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중 택1 ②영어 ③면접
   언 론 학 과;①매스컴일반 ②영어 ③면접
   나. 연 구 과 정 : ①서류전형 ②면접
4. 원서교부 및 접 : 1993년 5월 31(월)부터 6월 15일(화)까지
5. 시험일시 : 1993년 6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는 우대함.

* 본 대학교 무역, 교육,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 바람.

주소 :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 전철 1호선 휘경역(외대앞)하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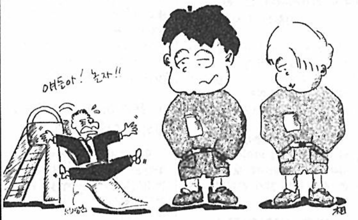
제606호 1993년 5월 25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수필－육아시설 복지문제에 관해

아이들의 성장 비타민은 아동복지라구요

"한나리의 국가발전을 결정하는 지수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사람마다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예로 그국가의 GNP, 평균수명, 고도의 과학기술, 문맹률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지표와는 달리 "그 국가가 지닌 발전을 위한 의식과 잠재력" 즉 '현세대가 다음세대에 대해 갖는 관심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교육을 떠올리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생활전반에 걸쳐 아주 중요한 복지분야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어느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서적이든지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전체아동을 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속에서 복지는 보통보다 못한 빈곤, 방치, 유기 등으로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설이라고 하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권을 상실한 사람을 위해 생활, 치료, 재활상의 봉사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이상 18세미만의 아이들을 보호·양육하는 곳을 육아시설이라고 한다.

가장 본질적인 육아시설의 문제로 과거 전쟁고아와는 달리 60년대 이후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요보호아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은 가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시설아동은 도시빈민, 영세인계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정적 요인도 가정이 원초적인 생활보장 역할을 못하는데 기인한다. 미국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역대정권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이를 위한 저임금, 저곡가정책들이 노동자의 삶을 압박했고 이농·탈농현상을 부채질해 농민의 도시빈민층화 등이 요보호아동의 발생구조로 작용하였다. 최근에 이혼모 문제도 외래퇴폐문화의 유입과 성의 상품화로 인한 윤락산업의 발생과정 측면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한다. 구조적 모순이 결과한 성도덕의 문란, 빈곤, 가정해체 등이 개인의 책임으로 강조될 때 사회는 언제나 그 모순을 반복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20여개의 육아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사회복지법인의 총수입중 정부보조는 78.9%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최소로 정한 80%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실제필요비의 61.8%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설화동의 삶과 연결시켜보면 주식비가 현물로 지급됐을시는 10.0%가 지급되나 해묵은 정부미였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금은 그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책값, 과외활동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한국전쟁직후에 건립되었고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개·보수가 지연 혹은 방치되고 있다. 반수이상의 시설이 지정병원이 없고 시설내 양호실도 55%만이 설치되어있다.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아동복지법상 육아시설의 의무는 경제적 빈곤등의 이유로 가정이 해체된 3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들에게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설과 시설직원은 시설복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설직원이 처한 근로조건의 열악함은 시설직원들의 질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 (직원월급평균 29만원, 1일24시간근무, 한달 28일노동, 보육사 1인 담당아동14명) 이는 직원들이 2~3년내에 시설을 떠나게 되고 직원의 역할을 잘해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책임주체는 정부(헌법 제32조2항, 아동복지법 제3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복지정책은 아동들의 삶의 개선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설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가야한다. 명목상 일부직역에서 지급되는 60만원의 사회정착금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주고 대부분 낮은 임금수준에 들어가며 실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더더욱 고아출신이란 점은 직업선택의 어려움과 직장내에서의 불신으로 잦은 이직이 있고 실업이나 유흥업소, 요식업등에서 일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을 발생시키는 한요인이 된다. 어린나이에 사회로 가는 시설아동들은 저임금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는 노동력착취와 불안정한 삶의 모습을 낳게한다.

아동은 오늘의 부여된 권리나 존엄한 존재로서 의의가 있는게 아니라 이나라를 짊어질 주인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동들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그 제반대책이 국가발전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하겠다. 따라서 정책입안을 맡고있는 국가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아동복지사업 전개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제 아동복지는 자선적 또는 인도적 견지가 아니라 마땅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 경인지역 육아시설 활동연합회 실천 사랑>

할아버지의 분노 —지난 18일(화) 연세대 앞에서 광주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도중 과잉 폭력진압을 하는 전경들에게 한 할아버지가 노여워하고 있다.

<이훈성 기자>

파수대

□서평－'무당'을 읽고

나라가 없어져도 뿌랭기가 살아 있어야 그 나라를 찾을수 있는 법이여

한도 많고 정도 많은 우리의 민간 신앙인 굿, 과연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흔히들 무속이라 하면, 쌍심지를 켜고 거부하고 질시하는 부류, 그렇지는 않더라도 미신이라는 관념 하에서 무관심과 냉대를 보내는 부류, 그리고 우리의 전통 민간 신앙인 굿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부류 등이 있다.

이 글에서 굿이 근·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 지, 정 강우 씨의 목소리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무당'의 1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갑오농민 전쟁 이후의 일제 침탈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오성산 산지당에서 거주하고 있는 곰보당골, 용천댁, 동철. 이들과 결합하는 무녀도의 순녀 그리고 숯 장수 박 영감, 왕치, 꺽쇠, 삐쭉새.

일제를 대표하는 신 형사, 야마다 서장, 고바야시.

민중을 대표하는 왕눈이 어머니, 이순이 할머니, 삼신 할매.

그 외에 외세를 대표하는 예수장이 귀동, 목사, 조오지.

이들이 펼치는 '무당' 1부는 산지당 식구들의 내력과 일제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는 무당의 삶이 전개된다.

곰보당골의 신딸로 들어온 순녀의 무업 수업이 진행되면서 산지당은 활기를띤다. 소소한 내력들이 전개되다가, 순녀와 동철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무제(일종의 기우제)'를 기하여 사건은 급반전 된다. 용신딸의 분노는 급기야 복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용신딸의 구속, 곰보당골의 감옥살이, 그리고 용신딸의 정신분열증, 곰보당골의 죽음과 함께 1부가 막을 내린다.

'무당' 2부는 곰보당골의 사후, 순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소소한 굿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용천댁에의 한 마마 배송굿, 동토가 난 집의 손굿 등의 민간 신앙적인 습속들이 행해진다.

일제 패망 후에 다시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과 좌·우익의 대결 속에서 산지당은 격류에 휩싸인다. 순녀 외삼촌과 용천댁 남편인 오 대식, 문 성국 등의 좌익과 신 형사를 중심으로 한 친미우익의 대결에서 무당의 수난사가 또다시 펼쳐진다.

한편, 외세를 등에 업고 활동을 개시한 예수장이 귀동의 활동(신 형사를 구출하는 대목)도 연출되고, 산지당 식구들과의 갈등 요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순녀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는 법"이라면서 기독교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무당의 정당성을 내비치고 있다. 나아가서, 박 영감의 대화를 보자. "여그는 우리 조선 민족으 뿌랭기닌게 너그들이 지켜야 한다."에서 보듯이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이 책의 전편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다. 어두웠던 근·현대사의 이면에서 처절하게 부딪치는 삶은 산지당 식구들을 더욱 조여오고 늘어만가는 묘지는 말없이 항거하고 있다.

2부의 대미는 순녀의 무병으로 장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당' 1·2부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작자 자신이 현시점에서 조명해 보고 싶었던 것은 무당의 역사라기 보다는 지금의 현실을 안타까와 하고 있음이 역역히 보인다. 제국주의 침탈은 또다시 우리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수입개방 압력, 문화 침략으로 인한 우리의 정서 파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상품 시장화 등의 현실이 못내 서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갈수록 피폐시키는 기독교 문화 앞에서 이제는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우리의 문화는 우상이라는 미명하에 난도질 당하고 강요아닌 강요를 당하고 있다. 장승 문화도 이 맥락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전통 문화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 지 조차 구별 못한다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전통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끝으로, 밀려오는 외세 앞에서 무당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박 영감을 통해 살펴 보면, "자꾸만 여그저그서 서양 것들이 들어옴서 우리 것보고 미신이라고 허지만 동철이랑 순녀랑 생각허여 봐라. 단군 할아버지가 이나라 이 땅을 여신지가 수천 넌이 지내갔는디, 그런 기적이 없고서야 굿이 어떻게 사람들 마음에 뿌리 박어 이어져 내려 왔것냐? 그런 것을 하루 아침에 없일라고 헌다고 없어질 것이냐? 깊고 오래묵은 낭구는 비어 내도 옆에서 새눈이 나오는 법인디, 나라가 없어져도 뿌랭기가 살아 있어야 그 나리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넘들은 당골이나 나 같은 숯 장사를 허찮허게 보고 웃을지 몰리도 우리가 있어야 역사가 지탱한다는 사실을 알어야 헌다." 이것이 곧 무당의 삶이자,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 민족의 삶이었다. 비록 외세가 여기 저기서 설친다해도 결국은 민족의 정기 아래 무릎 꿇고 물러날 것을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민족굿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글을 맺고자 한다. "그러함에도 굿은 이른바 민족 문화의 최후의 미개지로서, 있는 저수지로서 그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으며, 종교, 예술, 사상등 제반 민족 자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정한 단서를 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김기환

(서양. 서반아어4)

□음악이야기－퓨전재즈

여러쟝르 혼합된 연주 위주의 음악 퓨·전·재·즈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음악만큼 그 쟝르군에 있어서 복잡해진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같은 새롭고 획기적인 음악장르도 생겼지만 기존의 락, 발라드, 재즈, 블르스, 트로트, 헤비메탈 등과 같은 쟝르가 함께 섞여져 새로운 느낌의 음악이 탄생되는 경우가 많다. 후자에 속한 예로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즈(Jazz)와 록(Rock)의 사생아란 비난과 찬사속에 탄생한 퓨전 재즈(Fusion Jazz)라 하겠다. 퓨전재즈란 그 단어에서 보듯이 재즈를 바탕으로 해서 락(Rock)적인 음향(Sound)을 혼합(fusion)한다는 의미이다. 퓨전 재즈(Fusion Jazz)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Jazz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하다. 재즈는 보통 사람들이 어렵고 난해하게 생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근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어렵긴, 어려운 음악이다. 재즈발생의 고장은 뉴올리안즈로 되어 있으나 정확하게는 뉴올리안즈를 중심으로하는 그 주변 및 미국남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재즈의 질은 풍부한 표현력과 리듬의 섬세함이라는 재즈적 기교에 얼마만큼 연주자의 음악성, 창조성,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작곡(작품)보다는 연주가 중심인 음악이며 연주행위와 그 성과가 감상의 대상 즉 음악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특이한 성격이라 하겠다. 이러한 재즈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재즈, 그 지체가 다양화되고, 다른 쟝르의 음악과의 접촉, 교류(혼합)가 격심해지는데 이 과정속에서 퓨전재즈의 뿌리를 찾아보려면 리얼재즈나 메인스트림재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개 1960년대 후반을 퓨전재즈의 태동기로 결정짓는다. 그러나 활성화되기는 1976년 이후로 젊고 의욕있는 뮤지션들이 자신들이 지닌 개성적인 음악성에 새로운 음향과 연주기법을 개발해 퓨전재즈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 퓨전재즈가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일부 재즈팬들에게 수용되면서 이 방면에서 효시격인 고(故) 유재하가 나왔고 그는 그의 첫 앨범에서 엄청난 대중을 확보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퓨전재즈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장의 앨범을 낸 후 안타깝게 이 세상을 등진 아쉬움을 남겼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이 1988년 첫 시도를 했고 이들 또한 젊은 음악팡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현재도 이들은 퓨전재즈그룹으로써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Rock의 성향이 더 강하다. '빛과 소금' '아샤' 등의 뮤지션들도 이 분야에서는 실력자로 평가 받고 있다.

이들은(유재하, 봄여름 가을 겨울, 빛과 소금 등) 매스컴을 통한 접근보다는 콘서트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퓨전재즈의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 퓨전재즈분야야 말로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삼

(서양·영어2)

'학문·생활·투쟁의 공동체 한총련 출범식' 기획광고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총련 출범식

□기간 : 5월27일(목) ~ 29일(토)

□장소 : 고려대

출정식이 있습니다.

이문 : 폭주기관차 동총련과 함께 오후 1시에 노천극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고려대까지 행진을 합니다.

왕산 : 오후1시 노천극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고려대로 달려갑니다.

외 대 학 보